문화여성

문화매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광명농업협동조합
광명시 범안로 1063(하안동)
☎ (02-896-3141-4)

제 1072호 2021년 6 월 11일 금요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 1000만명 넘었다…접종률 19.6%

"75세 이상 확진자 뚜렷한 감소세…2주 후 65~74세 보호효과도 더 높아질 것"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0일 "현재 1차 접종자의 누적접종자 수가 1006만 명으로 집계돼 전 국민의 19.6%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이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해주신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의 의료진과 실무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75세 이상 연령대의 확진자 발생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65~74세의 1차 접종률은 53.6%에 도달해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 후부터는 해당 연령대의 보호 효과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상반기 접종목표인 1300만 명, 전 국민의 25% 이상 접종을 마치는 동시에 현재와 같은 방역수칙을 유지하는 경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16일까지 실시하는 얀센 백신 접종대상은 사전예약을 마친 군 관련 종사자와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약 89만 명으로, 전국의 8000여 개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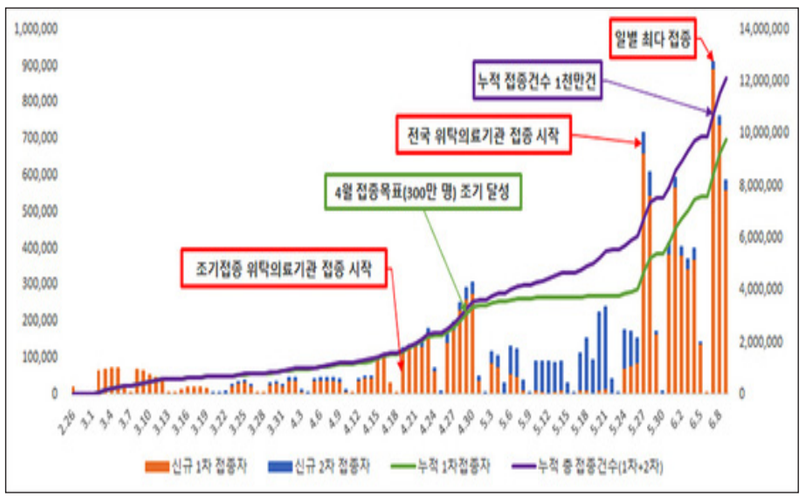
또한 "얀센 잔여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동일하게 네이버, 카카오 등 SNS를 통해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잔여백신 당일예약이 가능한 국민은 30세 이상 국민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에 4주 이내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의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해주시며 이상반응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60~74세 고령층의 예약률이 8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접종 의향 등으로 예약자 수가 의료기관에 배정한 백신 물량을 일부 상회해 일부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예약자 중 일부가 접종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접종을 못하는 사전예약자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7월 중에는 반드시 접종을 해드릴 예정이며,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접종일정을 개별 안내하도록 하겠다"면서 위탁의료기관의 협조와 예약하신 어르신들의 양해를 미리 구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접종대상자의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대상자와 예약대상자 조사 시에 명단제출이 누락된 인원에 대해 추가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사전예약을 받고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시행하는데, 이전 조사기관의 명단제출이 누락됐던 대상자는 각 대상군별 소관 부처를 통한 대상자 재조사 기간 중에 반드시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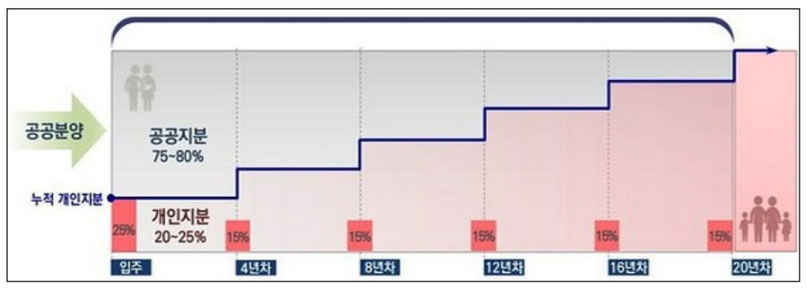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률이 높은 국가 중에 미국·독일·이스라엘 등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안전한 예방접종과 함께 일상생활 속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기화된 코로나 대응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여로 유행을 억제하고 연대와 참여 정신으로 예방접종에 팔을 걷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집값 20~30년 나눠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지분 적립 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때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분할 취득하되, 처분 때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나눠 갖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장기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은 정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칼럼] 같은 죽음, 다른 가치, 인간은 평등한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차를 두고 젊은 여성 2명이 운명을 달리했다. 학교 동창에게 감금당해 2천 번이 넘는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냉수목욕 등 가혹행위를 못견디다 숨진 26살 여성이 있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올렸지만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도록 의견제시를 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낯선 객지에서 친구라고 의지하다 범행의 도구로 전락한 여성은 함께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성매매로 인한 돈벌이에 동원되면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주거하던 집에서 감시당하며 2천 번이 넘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3천 번이 넘는 성 착취 사진 촬영도 찍혔고 이를 거절하면 상대는 여성을 차가운 물에 집어넣거나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던 여성은 지방으로 도망갔지만 입원한 자신을 끝까지 찾아내 다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1월 19일 한겨울, 그녀는 차가운 물 속에서 떨다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또 다른 죽음은 이미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공군 여중사 사례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인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인데 결국 터질게 터졌다는 내부의 여론이다.

여중사의 경우 3월 충남 서산에 위치한 공군 부대에서 회식 이후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성추행피해가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못한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지난 5월 22일,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반강제적인 성추행과 내부적 분위기를 악용한 압력, 심지어 피해자의 남자 친구까지 불러다가 압박하는 등 비 인간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가 될 것 같아 전근을 갔지만 졸지에 관심병사로 몰려 또 다른 색깔의 압박을 받았다. 결국 혼인신고 당일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의 모습을 녹화하며 생을 마감했다. 위의 사건 둘 다 원한에 사무친 죽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종결은 전혀 달랐다.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한가. 인간의 생명이 모두 귀중하고 안전에 대한 보장에 차별이 없는가.

아니다 전자는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후자는 공군 참모총장이 옷을 벗고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표했으며 대통령이 조문을 다녀갔다.

온 국민이 공분했고 육해공 전군에 대한 성폭행 대응 매뉴얼의 재점검에 착수했다. 물론 동일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군의 사기도 오르고 여군들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문제는 전자의 죽음에 대한 대응이다.

친구라는 미명하게 수 천 번이나 성매매를 강요당해 지옥 같은 삶을 살다 갔음에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넘어가도 될 일인가.

약 1년 2개월 동안 2천 번이 넘는 성매매를 당했다면, 그 주변의 지구대는 뭘 했던가. 그 지역의 경찰서장은 몰랐단 말인가. 피해자가 당하는 그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인가. 그 많은 성매매에 성을 산 매수남들은 정작 눈치채지 못했단 말인가. 모두 공범이다.

경찰도 매수남도 가해 남녀와 범행의 깊이와 방법만 다를 뿐 피해자의 눈에는 모두 똑같은 악마들일 것이다. 죽음에 예외가 없으며 누구나에게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물론 유사한 피해자와 사망자는 숱하게 속출 하는게 사람 사는 사회다. 지금이라도 전자의 죽음에 대해 사법당국과 국민은 후자와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공군 참모총장은 무슨 죄가 있어 옷을 벗었을까. 물론 응당 책임은 져야하지만 대한민국 영공의 총 책임자가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면 국방의 공백은 어떻게 해결할까.

만약 참모총장이 없어도 별일 없다면 더 큰일이다.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하던 똥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명분으로 국가 방위의 체계가 순식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군의 사기는 어쩔 것이며 자칫 일시적인 방안이 중대한 군사력의 차질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군부대 성폭행 사건이 왜 근절되지 않는지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지, 장군 날린다고 될 일은 아니다.

같은 이치라면 운명을 달리한 첫 사례 여성의 범행현장도 철저히 검증하여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물론 지방청장까지 옷을 벗어야 한다.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과해야 하며 빈소에는 대통령은 몰라도 누구든 찾아갔어야 했다. 인간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죽어서까지 다른 대우와 대책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같은 범죄는 언제든 어디서든 계속 일어날 것이고 경찰에 대한 신뢰는 영영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 번 한 많은 삶을 짧게 살다간 두 여성의 죽음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이 땅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근본적인 대안을 세움으로써 지금의 아픔이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어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본다.

덕암/김균식

홍 부총리 "임상전문인력 올해 1600명, 2025년까지 1만명 양성"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임상시험 인프라 확충 등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2030년까지 세계 5대 임상시험·신약개발 강국도약을 목표로 하겠다"면서 "임상전문인력을 올해 1600명, 2025년까지 1만명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11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백신·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국 4대 핵심품목 공급망 행정명령 검토결과를 통해서도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BIG3 산업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면서 "BIG3 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하반기 정책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분야 경제협력 강화를 계기로 우리 BIG3 산업이 글로벌 핵심 공급망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차 수출급증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기업과 글로벌 완성차사간의 합작투자 등 협력이 본격 진전되고 있고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한 진전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도 그동안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수출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특히 글로벌 선두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및 위탁생산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백신허브로 부상 중이다.

홍 부총리는 먼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에 대해 "부품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연계하는 스마트 브릿지(Smart Bridge) 프로젝트 운영 등 사업재편 지원시스템 확충을 통해 매년 100개, 2030년까지 1000개 기업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사업모델 발굴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신흥 미래차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등을 강화해 2030년까지 1000만달러 수출기업 250개를 육성한다.

또 미래차 관련 펀드를 활용해 미래차전환 R&D 및 투자를 지원하고 부품성능·주행데이터 축적·공유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027년까지 1만명의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빅사이클을 기회로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계된 재정사업도 이에 맞춰 신속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예타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규 착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한 신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예타가 진행중인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과 K-Senosr 기술개발 등 3개 성장기반 강화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신·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과 관련해 임상의 모든 단계를 스마트화하고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임상 집중지원 등으로 2030년까지 세계 5대 임상시험·신약개발 강국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임상비용과 시간절약을 위해 참여자모집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임상시험기관 데이터 집적화와 AI 활용 빅데이터 분석·제공 등 임상시험 전과정을 지원하는 ICT기반 스마트 임상시험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5개 권역별 거점병원 중심 네트워크와 암, 감염병 등 5대 질환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규모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신속 지원하고, 신속한 임상시행을 위해 네트워크 참여 의료기관간 공동 IRB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임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범부처 신약개발 R&D자금과 바이오관련 정책펀드 등을 활용·지원하고, 보스턴 바이오밸리에 지원거점도 설치해 미국시장 임상연계·컨설팅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2020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온라인 결산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 동대문3)는 2021년 6월 10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20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55조원에 달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세출기준 서울시 44조 4,100억 원, 교육청 10조 6,076억 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방역 강화"에 따라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1,2부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 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제1세션 총론·교육 분야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좌장을 맡고, 결산검사 위원인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및 조도형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장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이어서, 제2세션 분야별 토론은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 및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 담당부서장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발표와 토론자에게 "결산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이재명, 도의회 건교위 만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해야" 재차 당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처리를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원 위원장과 오진택·권재형·조광희·김경일·김종배·김직란·박태희·김규창·오명근·원용희·이필근 의원 등 건교위 위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시중 가격 이상으로 건설공사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낭비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오히려 다른 곳에 훨씬 유용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얘기처럼 표준단가 말고 표준품셈으로 하면 공사 품질이 올라가냐 하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사비 적게 줬다고 엉터리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인 만큼, 상식과 원칙, 도민의 의사에 부합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경기도에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명원 위원장은 "조금 민감한 사안이지만,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소통과 토의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당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8일 도의회 건교위 위원 14명에게 서한문을 보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고, 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최근수/기자

윤명희 도의원, "통합운영학교 체계적인 추진으로 예산 낭비 최소화해야"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일 열린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에서 미래통합학교를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통합학교는 출산율 저하와 학력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40%에 이상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에서 1999년부터 학교 급이 다른 2개 학교를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활용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12개 학교가 있다.

윤명희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를 위해 다양한 학습공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교실 구축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며 "통합운영 학교로 지정될 학교를 미리 파악하여 학교 시설비가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춘호 행정국장은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지역적 여건 분석, 학부모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있다" 며 "통합운영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때 선정 하겠다"고 답했다.

윤명희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지역민과 학부모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통합학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통합운영학교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통합운영학교가 인구감소로 학교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전남학교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며 "통합운영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명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들이 자녀돌봄과, 학습결손, 학습격차를 걱정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자녀돌봄 체계 구축과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안/기자

수원시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통해 쾌적한 수원시 주거환경 조성 도모

수원시의회 윤경선(진보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오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은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뜻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외벽 균열 보수 공사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공사종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수원시 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수원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류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대표전화 : 1899-965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성동구, 또 한 발 앞섰다 • • • 성동구 도입한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이젠 전국 확산'

서울 성동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이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혁신 책임관 회의에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로 꼽힌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은 앞서 성동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생활밀착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성동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여기로'를 도입하여 운영한 데 이어, 올 초에는 또 다른 간편 배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빼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로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 같은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은 과거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구민이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 배출 스티커를 구입해야하는 수고로움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대체할 수 있어 구민 호응도가 높다.

이 때문에 10% 안팎에 머물던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사용률은 5월말 현재 35% 까지 치솟았다.

특히 최근 도입한 '빼기'서비스의 경우, 간편하게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을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혼자 바깥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대형생활폐기물을 집 바깥으로 옮겨주는 '내려드림'서비스까지 제공하여 구민 편의를 한층 높였다.

성동구는 이 서비스를 지역 어르신 일자리와도 연계, 구민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발굴, 선제적으로 도입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재 성동구가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은 구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해 자원순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향후 어르신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처럼 성동구는 구민의 삶 가까이에서 많은 편의를 드릴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발 빠르게 발굴·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영등포구, 동네 가게가 새로워진다 '아트테리어' 참여 예술가 모집

영등포구가 이달 14일까지 '2021년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에 참여할 예술가 1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은 소상공인과 지역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점포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가게 외관과 내부 디자인은 물론 상품 디자인과 브랜딩까지 예술가의 젊은 감성을 덧입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다. 또한 상권 자체를 볼거리가 있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 거주중인 시각·조형 예술분야 전공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구민이거나 영등포구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활동 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이다.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 최대 54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주요 활동 분야는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내·외부 아트테리어 활동 ▲내·외부 공간 리뉴얼(월페인팅, 윈도우페인팅, 내부 공간 디자인 등) ▲디스플레이 디자인(월 데코, 쇼윈도 디자인, 메뉴판, 데코시트지 등) ▲작품 설치 및 전시(입체 조형물, 조각, 그림 등) ▲제품 및 인쇄물 디자인(머그잔, 식기, 패키지, 명함, 스티커 등) ▲브랜딩 및 마케팅 등이다.

사업 대상지는 영등포 소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40곳이다. 구는 4월부터 영등포 청과시장과 양평2동 골목상권을 주 대상으로 참여 가게를 모집해 40곳을 최종 선정했다.

참여 가게에는 가게 디자인 개선을 위한 재료비가 1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예술가 1인 당 4개 이내 점포를 맡아 디자인 개선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및 기타 제반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합격자를 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은 7월 7일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및 예술가들 간 상생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영등포 곳곳에 예술이 더해져 골목상권이 활성화됨으로써 제2, 제3의 문래창작촌이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강동구,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추천하세요~

강동구가 청소년들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2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 ▲근무 당사자 추천 등 5가지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매년 기준 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강동구알바지킴이의 현장조사 후 선정심의를 실시하여 선정하고 있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인증현판 전달, 고객위생 및 편의증진 물품 구매(연 5만원), 공공요금 및 종량제봉투(연 24만원), 친화사업장 홍보 등을 1년간 지원한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선정을 위해 추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대상은 강동구 사업장에서 최근 5개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0~20대와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이다.

단,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PC방, 노래방, 호프집 등은 제외된다.

설문조사는 아르바이트 횟수, 근무내용 등 아르바이트 기본사항,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인증요건 충족 여부 등 16가지 항목(사업주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추천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지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선정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로 청소년에 노동친화적인 사업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서초구, '외국계 기업 취업 아카데미' 통해 글로벌로 나가는 서초청년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좁아진 취업문을 넓히고, 외국계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최적의 취업성공 기회를 지원하고자 '외국계 기업 취업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한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외국계 기업의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지리적 여건과 상대적으로 많은 유학생이 있는 특성이 있으며, 외국계 기업의 선호도가 증가하는 취업 트렌드에 맞춰 이번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올해 12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상시 운영되며, 외국계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청년 수강생에게 1:1컨설팅과 현직자 특강이 제공된다.

올해는 특히 청년들의 효율적인 적응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컨설팅과 영어면접 대비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영어 모의면접 프로그램도 운영함으로써 최적화된 취업지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누구나 꿈꾸는 글로벌 IT회사인 구글코리아에서 일하는 현직자가 들려주는 직무특성, 취업과정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특강을 준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비재기업 중 청년 취준생이 선호하는 기업을 엄선하여 특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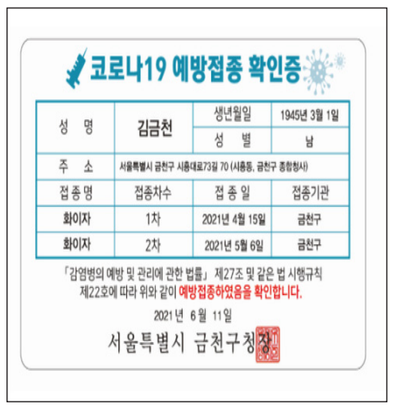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컨설팅은 총18회로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화·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운영되며, 영문 자기소개서 작성법, 영어 면접 노하우 등을 촘촘하게 알려준다. 청년 수강생들에게 강의 위주의 일방적 전달방식이 아닌 심층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현직자 특강은 총2회로 진행되며 글로벌 IT기업과 소비재 기업의 현직자들을 초청하여 생생한 채용 프로세스와 취업비결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구글폼 접수를 통해 가능하고, 1:1컨설팅은 회차당 6명, 현직자 특강은 5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아동청년과에서 가능하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외국계 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얼어붙은 취업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열쇠이길 바라며, 청년들이 취업 걱정 없는 행복한 미래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금천구, 접종률 제고를 위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금천구는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6월 11일(금)부터 '휴대용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휴대용 예방접종확인서'는 신분증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로 지갑 등에 넣어 소지가 간편하다.

휴대용 예방접종확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과 백신 종류, 접종일, 접종기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확인서를 지갑에 소지하여 다니면서 각종 시설이나 기관에 출입할 때 제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백신접종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구는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인 60세이상 75세미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별 예약기간, 접종 시작일, 예약방법을 구 홈페이지와 SNS 채널, 안전안내문자, 관내 미디어매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미예약자 1:1 유선연락 및 문자발송, 통통희망나래단 활용 안부 확인 시 백신접종 예약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르신 시설 및 기관, 주민자치회, 직능단체를 통해서도 예방접종을 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최근 요양병원과 주민 일가족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으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감염되지 않아 백신 접종의 효과가 입증된 사례가 있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회복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대상별 접종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서대문구, '생애주기별 인권' 주제로 주민 인권학교 개최

서대문구는 '2021년 주민 인권학교'가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9일 밝혔다.

아동, 청년, 어르신 등의 생애주기별 인권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보호돼야 할 인권에 대해 강연했다.

한 수강 주민은 "세대별로 겪고 있는 생활 속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를 들으며 지역 공동체의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인권 감수성을 지녀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과정에 참여하신 주민 분들이 앞으로도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인천 동구 송림도서관, '이야기 할머니 보따리방' 제작·어린이 교실에 배포

인천 동구 송림도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기존의 '책 읽어주기' 활동을 포함한 각종 대면 서비스가 제한됨에 따라 영유아들을 위한 비대면 독서프로그램「이야기 할머니 보따리방」을 제공한다.

「이야기 할머니 보따리방」은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 '금도끼 은도끼' 2편의 이야기를 송림도서관 가상현실체험관의 동화 그림을 배경으로 생동감 있게 제작됐으며, 영상이 수록된 USB를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9개소)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8개교)에 배포하고 송림도서관 홈페이지 '언택트 라이브러리' 코너에 게시할 예정이다.

송림도서관 관계자는 "송림도서관은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도서관으로서 언택트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등 구민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영·유아들에게 비대면 독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유주/기자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D-100일기념식… 6개국과 교류협력의향서 체결

오세훈 시장, 프랑스 • 네덜란드 등 6개국과 건축분야 문화교류 협력의향서 체결

「2021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비엔날레는 도시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고 세계 여러 도시와 건축 분야 문화를 교류하는 국제행사로 서울시가 주최한다. 올해는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가'를 주제로 9월 16일~10월 31일까지 총 46일간 열린다.

서울비엔날레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일대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서울시는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D-100일 기념식을 8일 오후5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 중구 세종대로 119)에서 연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1부(문화교류 협력식) ▲2부(서울비엔날레 조형물 제막식)로 진행된다.

1부 문화교류 협력식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지하3층)에서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10개국 대사관, 도미니크 페로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등 3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다. 비엔날레 참여 작가 190여명은 온라인(Zoom)으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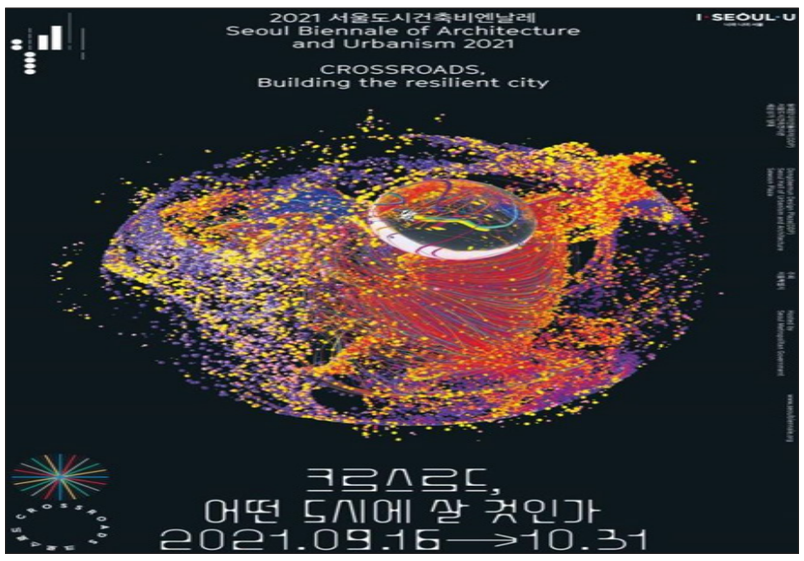
도미니크 페로 총감독이 이번 서울비엔날레에 대해 직접 소개해 올해 주제(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에 대해 미리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비엔날레를 통해 서울시와 돈독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6개국(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호주, 영국)과 서울 간 건축 분야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각국 대사들과 체결한다.

2부 행사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옥상)에서 열린다. 'D-100' 현수막을 애드벌룬으로 띄워 제막식의 시작을 알리고, 이번 서울비엔날레의 공식 심볼인 '바람장미'(wind rose)를 활용한 기념조형물(지름 약 3.5m)이 설치된다. 이후 개막식까지 100일간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념식에 앞서 이날 오전11시부터는 거리 퍼레이드도 진행된다. 퍼포먼스팀이 총 5개 코스를 걸으며 서울비엔날레를 알리고 DDP, 세운상가, 을지로광장 등에선 버블·마임 공연도 한다. 비엔날레 공식 심볼인 '바람장미'가 그려진 부채도 시민들에게 나누어줄 예정이다.

▲코스1(전시관~정동극장~경향신문~돈의문 마을~역사박물관~전시관) ▲코스2(전시관~북창동~신세계·롯데백화점~을지로~전시관) ▲코스3(세운상가~명동역~명동거리~전시관) ▲코스4(DDP~세운상가~종로~전시관) ▲코스5(DDP~세운상가~종로~전시관)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서울비엔날레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세운상가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고 다채로운 전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주제전 및 도시전') : 이번 비엔날레 주제와 관련해 작가적 해석을 담은 작품 및 도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41개 국내외 건축대학의 연구 결과물을 전시하는 글로벌 스튜디오를 통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엿볼 수 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게스트 시티전 및 서울전') : 해외 도시 및 서울의 도시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공공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세운상가('현장 프로젝트') : '의심스러운 발자국'이라는 부제로 문학작가와 건축가가 함께 이룬 도시의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최광수/기자

인천시,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실효성 높인다.

8월 4일까지 워크숍 개최, 주제별 전문가 강의와 경관 행정가 토론 진행

인천광역시는 6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IFEZ 비즈니스센터에서 시, 군구 경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2021 인천광역시 경관 행정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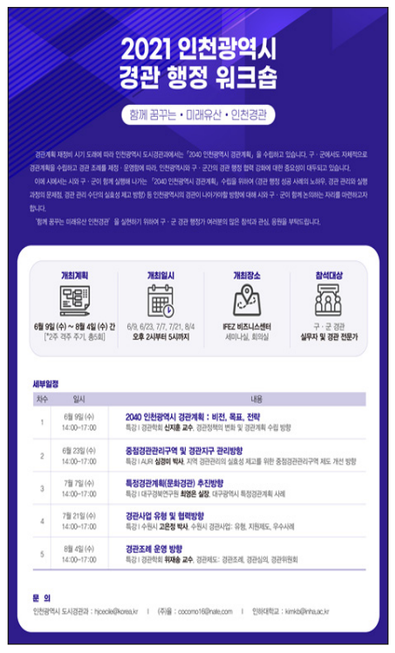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을 시와 군·구가 함께 실천하기 위해 계획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효성 높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고자 추진됐다.'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수립을 위해 개최된 '2015 인천 경관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각 회 차 별 주제는 시와 군·구가 함께 실천이 필요한 경관 계획 주요 정비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주제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각 회 차 별 주제와 관련해 제도 및 법규와 선진 사례에 대한 전문가 특강,'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의 계획(안) 공유에 이어 관계자 토론 및 의견 수렴으로 진행한다.

6월 9일 워크숍에서는 경관계획의 중요성과 경관 관리와 실행에 제약이 됐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의 실천력을 높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경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인천 경관 행정의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은"현재 경관관리 실정과 경관행정 추진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시와 군·구 관계자가 함께 토의함으로써,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의 실효성 향상과 시와 군·구 간 경관 행정의 체계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부평구립도서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온라인 회원증 발급

부평구구립도서관은 9일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민들은 6월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해 부평구립도서관 대출회원 신청자격(인천시민)확인이 가능해져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부평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상단의 '비대면 자격확인'을 클릭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거주지 확인 및 온라인 회원증 발급이 완료된다.

온라인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약 5천 종의 전자책과 전자잡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을 방문해 자료를 대출할 때는 온라인 회원증 발급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비밀번호(생년월일)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타 지역주민이 인천에 위치한 직장이나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기존처럼 6개월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을 갖고 방문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책 마실(상호대차)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도서관을 방문해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배창섭 부평구립도서관 본부장은 "이번 시행하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전자책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강한 독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순희/기자

구로구, 청년정책 발굴에 앞장선다! 제2대 '구로 청년의회' 출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청년정책 발굴·수립에 앞장 설 제2대 '구로청년의회'가 출범했다.

구로구는 "지난해 첫 출범해 구로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이끌어냈던 '구로청년의회'를 올해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구로 청년의회는 지난달 말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의원 총 34명을 선발했다.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구로구민, 관내 소재 대학 재학생이나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으로 활동기간은 올 9월까지다. 의장단(의장 1명, 부의장 2명, 간사 1명)과 상임위원회, 사무국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구로 청년의회는 정책, 조례에 낯선 청년들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멘토링을 우선 실시한다. 6월부터 매주 화요일 6회에 걸쳐 정책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멘토와 함께하는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

구의회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7월에는 구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8월에는 구의원과 함께 구로청년정책포럼을 열어 정책 발제·토의와 수립 내용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의회에 전달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출범식은 8일 오류문화원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년의회 의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성 구청장, 박동웅 구의회 의장 등의 영상 축사가 전달됐으며 의원들에게는 위촉장과 배지가 수여됐다.

출범식 후에는 정책 전문 강사의 '입법으로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교육환경안전, 문화예술, 보건복지, 일자리창업 등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별 활동주제 선정에 대해 토의했다.

지난해 구로 청년의회는 청년정책 34개의 발의안을 상정했으며, 본의회를 거쳐 31개를 의결했다. 이 중 위기청소년 멘토링 통합관리, 청년 정책 디자이너 양성 교육, '청년, 금융을 알다' 교육 등이 실제 구정에 반영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로 청년의회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 곳에 모아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청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부평구, '문화도시 부평' 선포

부평구는 10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법정 문화도시 부평'을 선포했다.

이날 '법정 문화도시 부평 선포식'에는 차준택 구청장과 지역의 문화예술인 등 99명이 참석했으며, 부평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 전세계로 '문화도시 부평 선포'를 생중계했다.

선포식은 '문화도시 부평'의 본격 사업추진에 앞서 시민들에게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알리고, 사업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비전선포 및 시민보고와 2부 전문가 발제 및 지정토론으로 나눠 진행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1부에서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구의 의지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부평을 문화도시로 선포했다. 그리고 구 문화관광과장의 추진경과 보고, 문화도시센터 팀장의 문화도시 사업 내용 설명이 있었다.

2부에서는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차재근 지역문화진흥원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와 '유기적 생명체, 문화도시'를 발표하며 문화도시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차준택 구청장과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최정한 부평구 문화도시 총괄기획가 등이 패널로 참여해 '부평 문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차준택 구청장은 "미래의 부평은 가까운 곳에서 문화로 삶을 충전하는 '15분 문화도시', 시민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활동하는 '포용적 문화도시', 음악이 삶의 소리가 되어 '흐르는 음악도시', '문화로 즐기고 일하는 창조도시'로 변화할 것"이라며 "문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평구는 올해 1월 6일 국가지정 공모사업인 '제2차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최종 선정돼 정부의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5년간 총 사업비 약 19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도시의 핵심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이다. 구는 지역에서 시민들이 모이고 주체가 돼 자생적 실천을 만들어내는 문화도시의 기초단위 '문화두레 시민회'를 구성하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 하는 문화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구는 ▲시민성 ▲내발성 ▲장소성 ▲창조성 ▲연대성 등 5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한 추진전략과 24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다양한 음악 활동에 참여·경험할 수 있는 '즐겁고 신명나는 음악동네 만들기'를 비롯해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아카이브', '굴포천 예술천 조성', '음악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한 축제'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캠프마켓과 굴포천 등 부평의 근대 역사공간을 연계한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스토리텔링 코스 개발 및 운영으로 부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흥미로운 역사·문화 투어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부평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전문가와 뮤지션, 기획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부평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평문화회관·부평문화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립도서관 등 부평지역의 영역별 기관들과 연대해 문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특히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대표 도시재생사업인 '부평11번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과 함께 도시 공간을 문화적으로 연계하고, 인천 음악도시 마스터플랜의 일환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유치, 인천음악창작소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예정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시민을 주체로 일상이 문화가 되고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해 누구나 함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문화도시 부평을 만들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한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인천 '동구 사람, 동네 사람' 허인환 동구청장, 출근길 걸어서 민생현장 속으로

민선 7기 취임3주년…현장에서 '민생의 답' 찾는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민선 7기 취임 3주년을 맞아 관내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출근길 주민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행정을 시작했다.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 아침 출근 시간을 이용해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걸으며 철저한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생형 적극행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8일 아침, 서흥초등학교 인근을 찾아 민선 7기 주요 역점 사업이었던 '아동친화도시'사업의 일환인 안전통학로를 현장 방문하고 송림 6동을 구석구석을 걸으며 주민과의 소통으로 하루를 시작한 허 청장은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실천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찾겠다는 취지"라며 "민선 7기 구청장으로 당선된 첫 마음 그대로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뛰겠다"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안전 운전환경 조성 기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0,017대)하였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1,938대)하였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7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3천건) ▲무등록 자동차(7.3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2천건) ▲불법명의자동차(6.4천건)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64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6.14.~7.13.)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광수/기자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폐기물 불법 반입 집중단속

출입 차량 29대, 부적정 폐기물 포함여부 전수조사

여수시가 만흥위생매립장을 출입하는 전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반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음식물 및 목재류 등 불법폐기물이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에 혼합되어 매립장으로 반입될 경우 반입 거부, 수거 차질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 폐기물 반입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7일부터 1개월간의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2개 반 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만흥위생매립장을 출입하는 수집·운반 차량 29대(생활폐기물 8, 공사장생활계폐기물 15,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6)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목재 등 반입금지 폐기물 반입여부',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혼합 반입여부', '타 지자체 폐기물 허위신고 반입여부', '불법 의심 폐기물 반입 시 배출장소 현장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폐기물은 즉시 반출 명령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실시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시민들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무주군, 방치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

무주군이 관내 주요 관광지와 야산, 계곡, 마을 주변과 공한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불법투기행위 단속도 병행해 깨끗한 환경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 및 단속은 총 4단계로 진행되며 5월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는 1단계로 무주읍 성안길과 안성면 이목마을 임도, 수락마을, 적상면 광포, 마산마을 등 5곳에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다.

지난 2일 무주읍 성안길에서 진행된 수거작업에는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자원봉사센터 김인환 센터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군수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정리해 겉과 속이 모두 쾌적하고 안전한 무주를 만들 것"이라며 "인식 개선도 시급한 만큼 수거, 단속과 함께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밝혔다.

2단계는 읍 · 면장과 마을이장이 주체가 돼 7일부터 30일까지 생활터 주변을 정리하는 것으로, 각 마을이 자체 수립한 계획을 기반으로 폐비닐과 농약공병, 페트병을 비롯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분류·수거할 방침이다.

또 이장회의와 읍면 전광판 등을 활용한 주민홍보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와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분리수거 생활화 실천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3단계로 무주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총 30개소) 운영을 확대하고 관제센터와 연계해 생활방범 CCTV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4단계에서는 각 읍 · 면 자율방재단, 청년회 등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고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김동필 과장은 "지난 5월까지 수해로 어지러웠던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 경관 개선은 물론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까지 수거한 쓰레기양은 8톤 정도로 수거기간 동안 인적이 드문 야산과 계곡 등지까지 샅샅이 정리하고 더 나아가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 고장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민 여러분이 앞장서주시고 감시원도 되어 불법 사항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우/기자

경기도, 허가도 안 받고 유해화학물질 보관…경기도 특사경, 불법 취급 사업장 67곳 적발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이다.

'ㄱ' 업체는 2017년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후 보관용량을 초과하자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헥사민 116톤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보관시설을 초과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업체는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 등 구획을 구분해 화학물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구분 조치 없이 강산인 황산(20kg)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25kg)을 혼합 보관하다 적발됐다.

'ㄷ'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를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의 작동 손잡이를 플라스틱 끈으로 묶어 놓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에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ㄹ' 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17kg)을 취급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및 보관시설에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예방조치문구, 국제연합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비상샤워(세안)시설 미작동 등 관리 및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 특사경 창설이후 최초 수사한 사례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2년(2019~2020)간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36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전국사고 132건 중 27.2%)으로, 그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9건), 작업자 부주의(24건), 운반차량사고(3건)로 밝혀졌다.

최근수/기자

안동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실시

안동시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일간 단속을 실시한다.

도심,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사업용자동차로 인해 소음·공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옥동, 용상동 등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는 물론, 최근 송하지구대 ~ 옥동3주공에 신규 개설된 구간에도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안전 에 대한 우려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축구경기가 강변축구장에서 11일 ~ 14일까지(4일간) 개최됨에 따라 참가 선수단의 안전과 대회 기간 내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강변주차장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이며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한편, 시에서는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21대의 밤샘 주차된 사업용 차량을 적발하고 58건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안동시 관계자는"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보행자 안전 확보한다

동작구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한다고 8일 밝혔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17년 4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2건으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운전과 경각심 제고로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를 도모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설치 의무화 되었으며, 구는 서울시,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위치를 최종 선정하였다.

구는 사업비 4억 4천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14개소에 ▲신호·과속장비 4대 ▲과속단속장비 10대를 설치한다.

주요설치지점은 강남초, 대림초, 신남성초, 신상도초, 본동초, 남사초, 사랑유치원, 샛별유치원, 꿈나무어린이집, 양지어린이집, 문화어린이집, 흑석어린이집 앞이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중 통학보행량이 많은 신길초등학교 앞 등 19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등 교통시설물 개선과 정비를 통해 어린이 안전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와 신호를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인성 강화를 위해 ▲LED 바닥신호등 ▲태양광 LED(발광형) 교통안전표지 ▲보행자 알리미 스마트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 할 예정이며, 구립윤슬어린이집과 이수어린이집 앞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신남성초 앞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남양주시, 화도읍과 조안면 잇는 재재기로 단절 구간 연결 공사 착공

군도 8호선(차산~삼봉) 도로 개설 공사 통해 통행 시간 감소 등 기대

남양주시는 10일 화도읍 차산리에서 조안면 삼봉리를 연결하는 군도 8호선(차산~삼봉) 도로 개설 공사에 착공했다고 밝혔다.

군도 8호선은 총 연장 길이 6.6km로, 시는 지난 2011년 11월 4.5k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단절 구간(차산~삼봉)인 2.1km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요 사업비는 총 380억 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203억 원이며, 시는 도비(광역교통시설부담금) 3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를 비롯해 지역 도의원 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사 규모는 연장 길이 2.1km, 폭원 14.5m, 왕복 2차로 도로로, 양측 보도가 설치될 예정이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NATM 공법을 활용해 사업 구간 내 터널 1개소(339m)가 설치된다.

그동안 화도읍과 조안면을 오가는 사람들은 두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국도 46호선 및 시도 10호선을 이용해 10km 이상 우회하며 통행해 왔다.

시는 군도 8호선(차산~삼봉) 도로 개설 공사 완공 시 통행 시간이 평균 15분에서 20분 가량 단축됨은 물론 화도읍 및 조안면 지역의 소통으로 물류 비용이 감소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도 8호선(차산~삼봉) 도로 개설 공사는 오는 2023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며, 시는 화도읍, 조안면 지역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감안해 공사 완료 시점을 최대한 단축해 도로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최정근/기자

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용인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며, 이번 정례회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영상을 PC와 모바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경강선 연장사업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어 경기 동남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접근성 강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한 교통대책을 위해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주요 사업들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결의안 1건, 보고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 후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하며,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한다.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한 후 시정답변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제1차 정례회부터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송출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최근수/기자

광명시, 탄소중립 국제 웨비나 참석 · · ·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공유

광명시는 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 웨비나(web seminar)'에 참석했다.

기후위기·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한-EU기후행동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광명시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덕구와 함께 기초지방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및 이행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국제 웨비나는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정책 수립, 재정의 녹색화, 기후위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 탄소중립 계획 및 기후에너지 정책의 심도 있는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광명시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에너지 거버넌스와 시민교육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대덕구도 기후에너지정책과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활동을 공유하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노르웨이 Morten Nordskag 정무부시장 간 기초지방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대담으로 이번 국제웨비나를 마무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대덕구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유럽 녹색수도로 선정된 노르웨이 오슬로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 기쁘며, 우리 시의 우수한 사업과 오슬로의 우수한 사업의 교류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P4G, 지역탄소중립 이행 정책토론회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함께 그린 광명-쿨루프 사업, 광명 Bee 에너지학교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탄소배출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순희/기자

포천시 가산면, 나눔실천 착한기업 및 단체 현판 달아주기 행사

포천시 가산면과 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8일 올해의 착한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해 현판을 전달했다.

나눔실천 착한기업 및 단체 현판 달아주기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하여 꾸준히 후원금품을 기부한 착한기업 및 단체에게 이웃 사랑 실천을 알리는 현판을 달아주는 것으로, 올해에는 ▲(주)이고진(대표 이종애) ▲사랑나눔반찬봉사회(회장 서순남) ▲태사모봉사회(회장 이천희)로 총 3곳이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는 기업애로 청취와 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고진을 방문한 박윤국 포천시장이 직접 현판을 전달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이덕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 과중에도 불구하고 가산면에 꾸준한 후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후원 기업 및 단체에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대외적인 홍보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 이영구는 "이웃사랑을 실천한 참여 업체 및 단체에 자긍심도 높여주고, 많은 시민들이 나눔 실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판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대한적십자봉사회 양평군지구협의회, 용문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펼쳐

대한적십자봉사회 양평군지구협의회에서는 지난 7일 '민·관 협력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용문면 내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를 펼친 대상가구는 오랫동안 방치된 짐이 많고 씽크대가 망가지는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생활하기에 위험 요소가 많아 빠른 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는 사전에 미리 해당 가구를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회원들이 힘을 모아 불필요한 짐을 모두 정리하고 도배, 장판 및 싱크대를 새로 교체하는 등 어르신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조종상 용문면장은 "생업으로 바쁜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문면에서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가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율/기자

오산시, 노인일자리 전담 '오산시니어클럽' 위탁기관 공개모집

오산시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오산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법인을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5월 말 기준 65세 이상 오산시 노인 인구는 22,802명으로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사회활동 및 일자리 개발이 큰 당면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오산시는 오산시니어클럽을 설치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사업 발굴 및 교육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인을 공모한다.

수탁법인은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을 비롯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수행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운영 능력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서울·경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은 "오산시니어클럽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가평군, 신품종 옥수수 '가평 단' 첫 파종

가평군이 농업회사법인 팜앤피아에서 개발한 옥수수 신품종 지역브랜드특화사업을 위해 지난 4월 초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최근'가평 단 옥수수' 첫 파종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가평읍 마장리 337-3번지 일원에서 열린 신품종 옥수수 '가평단'파종에는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팜앤피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파종시연회를 열었다.

두 기관은 가평단 시험재배를 시작을 통해 관내 토양과 재배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올여름부터 가평군 옥수수 브랜드로 출시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관내 390여 옥수수 농가 92ha에 우선 공급하고 2023년에는 전국적 씨앗보급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서 두 기관은 옥수수 R&B 전문기업 설립 및 품종연구 등을 협력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신품종으로 개발한 프로젝트명 K-21로 명명되었던 한국형 옥수수는 '가평 단 옥수수'라 칭하고 공동명의로 상품출원 및 소유키로 협약한바 있다.

가평 단 옥수수의 단는 우리말 달다와 단아하다의 끝단으로 옥수수 품질의 끝(최고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김 군수는 "가평단 옥수수가 한국을 넘어 생물자원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곡물시장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가평이미지 브랜드 창출과 국내외 성공적인 유통을 위해 협력하고 농산물 유통망을 제공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옥수수 재배면적은 2만7000ha로 이 중, 식용 풋옥수수(찰옥수수)가 1만6000ha, 사료용 옥수수가 1만1000ha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만식/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는 협박성 보도 및 불법적 감사 중단해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9일 내부 게시판에 '경기도 감사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글을 게시하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게시글을 통해 남양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거부한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감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문제삼고 있는 종합감사대응 TF팀과 관련해 TF팀 구성은 '우리 시 직원들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설명하며, 우리 시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뜻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조광한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련 법령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가 부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경기도에 협박성 보도 및 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정근/기자

동두천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25% 감면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민간기업, 개인 등을 위해 2021년 정기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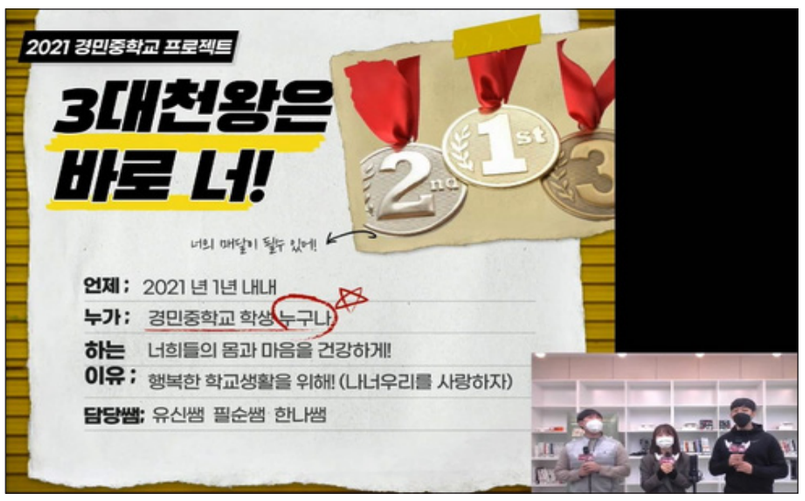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동두천시는 올해 정기분 하천점용료 약 1,300만원 중 약 300만원 감면, 소하천점용료 약 4,200만원 중 약 1,000만원을 감면할 계획으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두천시는 정기분 외 수시분에도 2021년 25% 감면액을 적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기업, 개인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기업들의 부담금을 경감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의정부 경민중학교, '3대천왕 프로젝트' 운영



경민중학교(교장 조성호)는 혁신학교 프로그램으로 '3대천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3대천왕 프로젝트'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한편 생활·배움·체험·나눔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3대천왕 프로젝트는 헬스왕(인문감성 체육학교 프로그램), 기부왕(흡연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산왕(백두대간 종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및 상장 수여, 생활기록부 기록을 부여하고 활동을 종합하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으로 연계하도록 기획되어졌다.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별로 마일리지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은 경민중학교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홍보하고 있다.

조성호 교장은"3대천왕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성품으로 자라나기 바란다"며"학교의 비전과 더불어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경민중학교(교장 조성호)는 혁신학교 프로그램으로 '3대천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3대천왕 프로젝트'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한편 생활·배움·체험·나눔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3대천왕 프로젝트는 헬스왕(인문감성 체육학교 프로그램), 기부왕(흡연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산왕(백두대간 종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및 상장 수여, 생활기록부 기록을 부여하고 활동을 종합하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으로 연계하도록 기획되어졌다.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별로 마일리지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활동 내용은 경민중학교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홍보하고 있다.

조성호 교장은"3대천왕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성품으로 자라나기 바란다"며"학교의 비전과 더불어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안성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성맞춤 보라데이 캠페인 실시

안성시는 지난 8일 내혜홀광장에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의 날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8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업무 협약을 실시한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티셔츠 제작, 다짐글 게시, 포토존, 릴레이토크(자유발언), 캠페인구호제창, 캠페인메시지를 담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 함께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오늘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주위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우리의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연중 추진하여,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단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전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일상생활지원과 상담·치료를 통해 심신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7월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안성맞춤 보라데이 캠페인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수/기자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오는 7월 개원 앞두고 공원 내 수익시설 사업비 심의

화성을 비롯해 안양, 부천, 안산, 광명, 시흥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이 오는 7월 1일 개원을 앞두고 유치 지역 주민들과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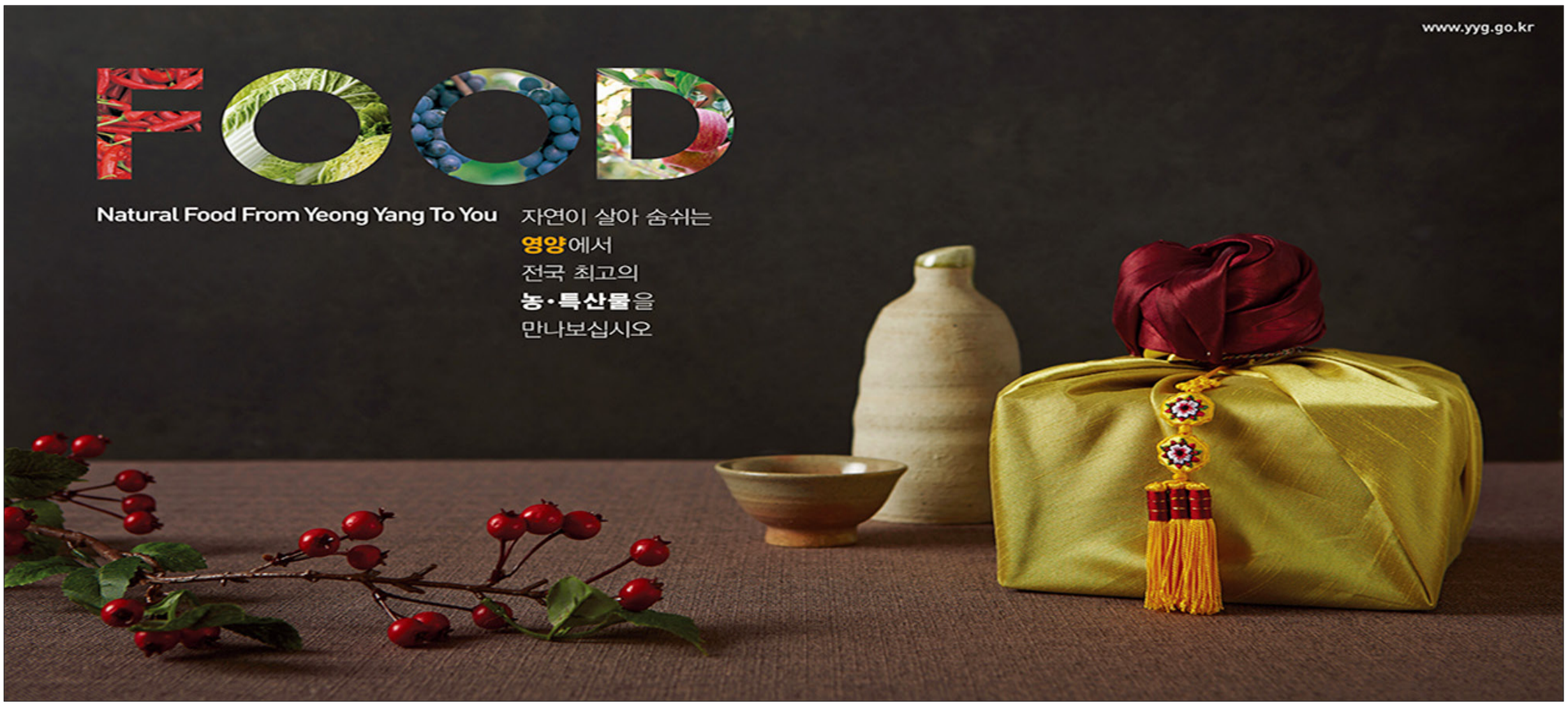
화성시는 9일 함백산 추모공원 봉안당 2층 임시회의실에서 추모공원 유치 및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 민간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숙곡1리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을 맡게 되는 추모공원 내 식당, 매점, 장례식장 등 수익시설의 사업비를 심의, 14억 원으로 책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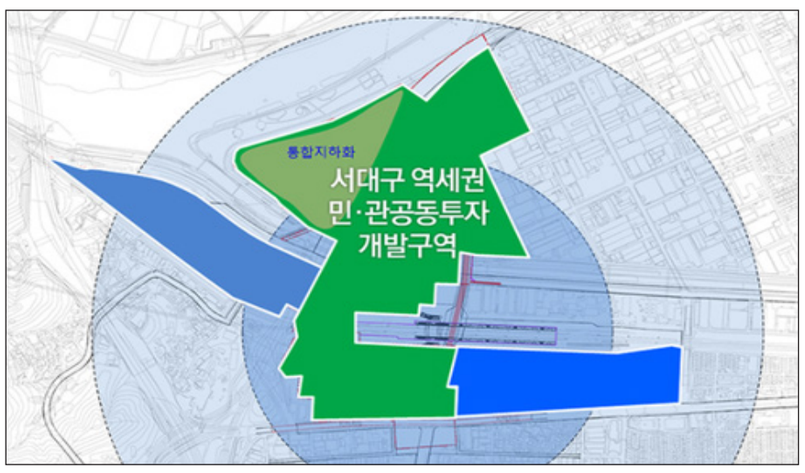
또한 지난 5월 18일 일부 개정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유치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마을발전지원금 50억 원 중 잔액 36억 원은 2013년 5월 1일 '화성시공동형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지원금 집행 시점까지 유치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주민복지·육영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은 "빠른 시일 내 유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6개 시 35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8년간의 산고 끝에 결실을 맺는 만큼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구시가 올해 4월 말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던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가 지난 5월 3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과제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됐다.

LIMAC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는 시비 투입에 대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전단계 절차로,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재정투입 전 거쳐야 할 사전 행정절차이다.

타당성조사가 수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수행결과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통과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업리스크로 간주되어왔다.

지난 5월 31일 열린 LIMAC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1년 정도 소요 예정이었던 LIMAC 타당성조사 기간이 단축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 불투명에 따른 위험 감소로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면제로 인한 행정절차 기간 단축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490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등 사업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계기로 사업기간을 당초보다 1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당초 2022년 하반기 이후 시행하기로 한 도시개발계획 및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2021년 하반기에 조기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승인사항인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경우 조기 착수와 함께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토부와 면밀히 협의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전략이다.

2023년 상반기 중 도시개발계획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완료하면 2023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한전부지 등 서대구역사 남측구역에 대해 우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 조기추진과 병행해 대구시는 현재 1차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함께 앵커시설 사업자 등 우수한 민간투자자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투자유치설명회 등 시 차원의 홍보와 유치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번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비대상 사업 결정으로 사업비 절감과 함께 중앙부처의 행정절차 통과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사업리스크가 대폭 감소했다"며, "향후 남은 절차들을 착실히 진행해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이 대구시민들의 염원인 동서균형발전과 코로나19 이후 대구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김천시 '집콕'으로 늘어난 쓰레기, 꼭 분리배출하세요!

김천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식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 배달음식과 온라인쇼핑이 급격히 증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9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종량제 쓰레기는 하루에 57ton이 발생해 전년 같은 시기에 48ton이 발생한 것에 비해 9ton(18.8%)이 증가했고, 이 기간 음식물 쓰레기도 지난해 대비 29ton(5.7%)이 늘어났다.

이에 김천시는 자원순환을 촉진시키고자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지난 5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부서 실명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밴드, 이·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분리배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USB를 배부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김천시는 세척되지 않은 배달 용기, 온라인쇼핑으로 인한 택배 상자 등이 재활용품과 섞이지 않도록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라는 4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 종량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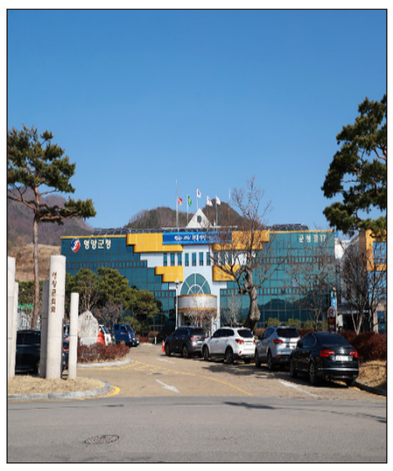
또한 낮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종량제봉투(쓰레기), 먹다버린 치킨박스 등에 날파리와 모기 등의 벌레가 서식하여 위생관리에 위해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적으로 지속해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진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구난방인 공동주택·단독주택 재활용품의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해 자원관리도우미를 모집하여 오는 6월 중순부터 분리수거 현장에 찾아가 음식물, 스티커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폐비닐이나 여러 재질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한 물품만 선별해 버리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자원관리도우미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부터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숙지하여 재활용률도 높이고 쓰레기 배출요일·시간·방법도 준수하여 수준 높은 김천시민의 청결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영양군, 민원담당자 보호에 적극 나서



영양군은 오는 10일부터 민원담당자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인사혁신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검진'설문조사 방식을 시군행정정보 시스템인 새올행정 게시판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민접점 민원공무원의 경우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피로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자가검진으로 증상이 더 악화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영양군은 민원인 폭언·폭행대비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군수와 민원창구직원 간담회, 민원공무원 직무소진예방 및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군 종합민원실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클래식 음악 송출용 앰프와 스피커 설치도 완료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내부직원이 행복하면 외부고객은 춤을 춘다"는 말이 있다며, "민원담당자가 행복하면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민원인은 만족할 수 밖에 없으므로 민원담당자 사기진작과 보호에 더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영천시 외지 청년들의 영천 정착과 창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1년 영천시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영천시는 청년의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2021년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의 신청 자격은 경북 주소지가 아닌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개인 또는 팀(최대 2인)이거나, 신청자의 주소가 경북일 경우 개인 단독으로 신청은 불가능하고 경북 이외의 타 시도 청년과 팀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7일부터 6월 22일이며, 신청방법은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연간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하고 1년차 지원에 한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의 정착활동비 사용도 가능하며 올해 영천시는 총 2명을 모집하고 도내 자원을 활용한 사업아이템 보유자를 우대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영천시에 유입되어 기존 청년 창업자와 다양한 정보 공유를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상주 자전거박물관, '코리아 소사이어티'소개

한국 최초의 상주자전거박물관,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소개되다!

상주 자전거박물의 소개가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유튜브를 통해 지난 6월 3일 전 세계로 방송됐다.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1957년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의 제안으로 미국의 저명인사들에 의해 창설되었다. 특히 한미 동맹 및 홍보 프로그램 구축 작업을 수행하며 국제 사회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방송은 유엔총회가 국제 자전거 날로 선언한 6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국 자전거 역사와 한국 유일의 자전거 박물관인 상주자전거박물관을 소개한 것이다.

윤호필 상주 자전거박물관장은 "상주 자전거박물관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소개 된 만큼 한국 최초의 자전거 박물관의 명성에 맞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울진소방서, '21년 경북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 우승 쾌거

울진소방서는 지난 5월 26일 김천소방서에서 치러진 2021년 경북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 분야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북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서간 기술교류 및 현장대응능력 향상,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을 위한 우수선수 선발 등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경북도내 19개 소방관서의 268명의 소방공무원이 4개 분야(화재, 구조, 구급, 최강소방관)에서 참여해 강인한 신체와 정신력의 기량을 겨루었다.

구조부분 1위를 차지한 울진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박현중, 심보경, 김진원, 백기윤, 이형준)는 10월에 개최되는 제34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에 출전한다.

울진소방서 김진욱 서장은"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구조훈련을 통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바라며, 경북소방의 위상을 올리도록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구조분야에 출전한 119구조구급센터 박현중 팀장은"꾸준한 팀단위 구조훈련과 기술연마로 완벽한 팀워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팀원간 믿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대구도시철도, '2021년 스토리텔링 소재 공모전 개최'

도시철도에서 생긴 친절·감동 에피소드, 역과 관련된 스토리 공모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전시함으로써 고객 행복(HAPPY DTRO) 감성을 증대하고자 『2021년 스토리텔링 소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주제는 ▶도시철도에서 생긴 친절, 감동 에피소드 ▶역과 관련된 역사, 문화, 관광 소재의 스토리이다. 이 가운데 1가지 주제를 선택해 수필(에세이)이나 시(詩) 부문에 1인 2점 이내로 응모하면 된다.

응모대상은 대구도시철도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6월 10일(목)부터 7월 30일(금)까지이다.

응모작품 중 우수작품 10편을 선정해 총상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1명) 50만원, 최우수(2명) 각 30만원, 우수(2명) 각 20만원, 장려(5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나 역사에 부착된 공모전 포스터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께서 그동안 도시철도를 이용하며 겪은 따뜻하고 훈훈한 감동 스토리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공모전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민선7기 3년, 창원 농정의 틀 대전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일터·삶터·쉼터) 기반 확충

창원시는 지난 3년간 농업분야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여 창원농촌이 일터 삶터 쉼터의 공간으로 살고 싶은 농촌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창원단감 전문생산단지 700ha 조성을 통해 물 부족 걱정 없는 안정적인 명품단감 생산 기반을 조성과 농촌관광 힐링의 명소 단감테마공원 조성으로 명실상부 전국 생산량 1위 단감의 종주도시로서 위상을 견고히 했다고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상 최대규모의 국비 확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특화발전을 위해 지난 3년간 일반농산어촌개발 국비 공모사업에 10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37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018년도에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총 50억 원 ▲2019년도에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총 50억 원 ▲2020년도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0억 원 ▲창원시 신활력 플러스사업 70억 원 ▲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74억 원 ▲진북면 금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17억 원에 선정되었다.

또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창원시 간의 농촌협약을 통한 사업비 300억 원을 확보하기 만반의 준비를 거쳐 지난 5월에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경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를 모두 마치고 9월에 발표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세우면 농식품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뒤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에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갖춘 '365 생활권' 같은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도 도전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 국비 확보로 계획적인 농촌지역 개발을 통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단감농업 근본적인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

전국 생산량 1위 창원단감을 대한민국 대표 감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감 과원이 산지비탈면에 조성되어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매년 폭염과 가뭄으로 지속적으로 과원이 축소되는 위기에 직면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수원 개발과 개별 과원에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국비 공모사업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사업에 3개지구 195ha 63억원이 선정되었고 ▲2020년 사업에 5개지구269ha 88억원 ▲2021년 사업에 2개지구 139ha 65억원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최종 목표 700ha의 단감 과원이 물 부족을 걱정하지 않도록 2022년 사업에 158ha, 74억원의 사업비를 공모 신청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를 거쳐 10월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1년도 2월에는 1단계 사업부지 준공을 마쳤으며, 2023년에는 4단계 사업까지 마무리를 지어 700ha 1,043농가의 단감과수원의 영농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고품질 창원단감 생산기반 구축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창원농촌관광 핵심 랜드마크 단감테마공원 위상 정립]

2016년 6월 개장한 창원단감테마공원이 허성무 창원시장 취임 후 지난 3년간 전국 농촌테마공원의 대표브랜드로 위상을 확보하고 농촌체험과 가족휴양의 명소로 탈바꿈했다.

▲2019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농촌테마파크 분야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 ▲2019년 경남 마이스 유니크 베뉴 창원단감테마공원 선정 ▲2회 연속 교육부지정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지정 ▲2019년~2020년 관람객 만족도 조사결과"우수"평가 ▲개장 5년 누적 방문객 80만명 달성 등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단감테마공원 내 단감나무 450주를 시민들에게 분양해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말상설공연, 어린이 대상 오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농업인 상생 정감 체험 프로그램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민들에게 농촌체험을 선사했다.

2019년부터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도농어울림 관광 팜파티 ▲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팜투테이블 드라이브스루 체험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획기적인 비대면 체험 행사를 기획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춰 발빠른 대처를 시도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농경문화와 연계한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소득화 모델 구축 및 단감테마공원 2단계 부지 58,824㎡에 먹거리 체험공간 조성과 음식-가공-체험-판매 등 관광콘텐츠를 확장하여 색다른 농촌 핫-플레이스로 조성, 전국 최고의 농촌테마공원으로 우뚝 설 계획이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속가능한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창원농촌이 농업인에게는 일터이자 삶터가 되고 도시민들에게는 쉼터가 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함안군, 6·25 참전유공자 감사패 수여

함안군은 지난 8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대산면 옥렬리에 거주하는 김영조 씨에게 6.25 참전 유공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김영조 씨의 형제인 김영주·김영희·김영달 씨가 꽃다운 젊은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하여 각기 다른 전투에서 모두 사망하여 그 고귀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위로의 뜻을 유족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여식에서 조근제 함안군수는 "조국 수호를 위해 거룩하게 산화하신 김 씨 형제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서는 경남 동부보훈지청장의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및 기념품 전달도 함께 진행됐다.

강영훈/기자

거창군, 탄소중립 안녕캠페인 '내안의 손수건' 나눔 활동

탄소는 줄이고 환경은 살리고

거창군은 9일 군청 앞 문화휴식공간에서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와 업사이클 재능나눔봉사단, 일반봉사자 등 10여 명이 참여해 2021년 경남안녕캠페인 탄소중립프로그램인 '내안의 손수건 활동'을 주제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위기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민들은 탄소중립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환경 실천 활동 관련 퀴즈를 풀었으며, 봉사자들은 참여한 군민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직접 만든 천연염색 손수건 50장을 함께 나눠줬다.

거창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안녕캠페인의 날로 지정하고, 10월까지 월 1회 총 5회에 걸쳐 환경실천 챌린지 진행과 더불어 '우리는 무조건 eco하고 뭉쳐서 eco한다' 는 슬로건 아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쓰레기 줍기활동 및 반려식물 나눔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산청군, 경남 태권도 꿈나무 산청서 나래 펼친다

경남 도내 태권도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남대표선수 최종 선발전'이 산청에서 개최된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산청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경남도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산청군태권도협회가 주관한다.

경남 18개 시·군 초·중등부 약 3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선수와 감독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과 함께 무관중 대회로 진행된다.

군은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가족 500여명이 산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우수한 체육시설 홍보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가자들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거제시는 오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거제시가 2020년부터 시행중인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만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으로 세대원 모두 거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이다. 또한 가구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금융권 대출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유(有)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0.5%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이력, 저소득, 자녀 수, 거제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이나 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훈/기자

양산시, 자영업자의 의미있는 장학금 전달 '눈길'

강가네손만두 양산역점 박선미 대표, 장학금 500만원 기탁

양산지역의 한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도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양산시 중부동 소재 강가네손만두 양산역점 박선미 대표는 지난 9일 양산인재육성장학재단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강가네손만두 양산역점은 2014년 개업해 7년째 운영하고 있다.

박선미 대표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뜻있는 일을 찾아보던 중 양산의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자웅 장학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인재육성을 위해 선뜻 기부를 해주셔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부산시, 공원 내 음주·야간 음식물 섭취 금지 등 행정명령 발령

부산시가 6월 9일 0시부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음주·음식 섭취 등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최근 무더워진 날씨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와 음식 섭취 등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식 섭취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내 주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 ▲음주 금지 ▲야간 시간대(22시~05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대상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원 5곳이다.

발령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애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주·고성방가 등을 뿌리 뽑아 건전한 공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게 되면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전라북도, 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확대 운영

젊은이들이여, '바다로' 가지고 섬으로 떠나자!

전라북도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의 혜택 범위를 확대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다로'는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연안여객선 이용상품이다.

2015년 12월 첫 출시된 '바다로'는 만 25세 이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절기(6~9월)와 동절기(12~2월)에 판매되는 계절 상품이었다. 평소 여객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들에게 방학 동안 여객선 이용과 섬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했다. 매년 참여 선사 및 선박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혜택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바다로-개인권' 상품은 만 34세 이하 내·외국인에 7,900원에 판매한다. 티켓 소지자는 '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20% 할인된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여행이 어려운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시범 도입한 '바다로-가족권'을 본격 판매(12,900원)한다. 기존의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2인 동반' 혜택을 '가족 3인 동반'으로 확대했다.

이번 '바다로'에는 총 81개 항로 123척의 선박이 참여한다. 전북도는 전체 항로(군산~개야도,말도,어청도. 격포~위도)가 적용 대상이다.

전라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바다로 상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숙박·관광·교통시설 등이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여객선을 타고 섬 여행을 즐기면서 바다와 섬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정읍시, 청년 도전 지원사업으로 미취업 청년 재도약 돕는다!

만18~34세 청년 대상 상담·맞춤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공

정읍시가 구직 단념 청년들을 발굴해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와 청년지원센터는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모집해 자신감 회복과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에게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생활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유선·이메일 등을 통한 생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련해 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 1기 참여자를 오는 7월 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구직 단념 청년이다.

교육 장소는 청년지원센터 교육장이며 8주 동안 총 37시간 이상(최대 46시간)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총 2기수로 운영되며 1기는 2021년7월6일~ 2021년8월19일 2기는 2021년9월14일~ 2021년10월28일 기간 운영된다.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지원센터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 도전사업을 통해 지역 내 250여 명의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백신 맞고 열이 난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약을 찾아주세요!

남원시보건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통증과 발열을 완화하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우선복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해열진통제 중 특정 업체의 제품명이 언급되고 백신 접종자 및 접종대기자들이 이상반응에 대비해 특정 제품만 구입하여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단일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현재 70여개로 특정 업체의 제품과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어 백신 접종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용량으로 선택·복용할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일반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순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을 검색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예방적 목적이 아닌 발열을 비롯해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에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를 복용하여야 하며,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동일 성분 제품이 많아 중복, 과다복용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하여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순창군으로 랜선 여행!

순창군이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국 학생들에게 순창의 명소를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해외 여행객 확산에 나섰다. 군은 지난 9일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의 비대면 안심 관광지인 채계산 출렁다리와 장류체험 및 전통놀이 체험 영상을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생중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랜선 여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외에 전북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에 지역의 관광자원을 직접 여행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이번 실시간 방송을 통해 2,500여명의 국제 학생이 영상을 감상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쌍방향 방송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랜선 첫 번째 여행지로 국내 무주탑 현수교 중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채계산 출렁다리'가 소개됐다. 채계산 출렁다리는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90m로, 이날도 스릴 넘치는 어드벤처 체험이 랜선을 타고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장류의 고장답게 순창의 대표 특산품인 전통 고추장 만들기 체험과 고추장 피자 만들기, 인절미 떡메치기, 뻥튀기 체험 등도 함께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의 전통 유학 교육시설인 순창의 향교에서 투호놀이, 단체제기차기, 깍쟁이 윷놀이 등 전통 놀이를 체험하고 손에 손을 잡고 빙빙 돌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염원하는 강강술래로 랜선 여행을 마무리 했다.

순창의 랜선 여행에 참여한 국제학교 학생들은 댓글창에 "백신 보급 확산으로 외국 여행 제한이 완화되면 꼭 순창에 가고 싶다.","순창 전통고추장과 고추장 피자의 맛이 궁금하다." 등의 글을 남기며 순창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랜선 여행을 통해 장류의 고장 순창이 알려짐으로써 외국인들에게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지역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고창군, 제18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온·오프라인으로 즐겨요

온라인 네이버 라이브커머스와 높을고창몰, 오프라인 드라이브스루 판매장 운영

고창군에서 지역 대표 농특산품인 복분자와 수박이 어우러진 즐거운 축제가 비대면으로 열린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제18회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를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네이버라이브커머스 방송과 높을고창몰을 통해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복분자와 수박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오프라인에서도 고창군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승차구매(드라이브스루) 판매장을 운영한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고창복분자와 수박을 사기 위해 전국에서 소비자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고창 황토배기 수박은 '국가브랜드 대상' 11년 연속 수상의 위업을 달성했고, 고창 복분자도 10년 연속 시상대에 오르며 대한민국 대표 여름 과일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달 상순부터 수확되는 고창복분자는 안토시아닌이 포함된 물질로 비타민 A, C, 각종 미네랄과 항산화효능이 뛰어난 대표적인 컬러푸드다. 복분자는 '요강이 소변 줄기에 뒤집어진다'고 하여 붙은 놀라운 이름이다. 전통적으로 복분자는 기력과 정력을 보강하는 상징 같은 열매로 여겨져 왔다.

특히 고창의 복분자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와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달콤쌉쌀한 특유의 맛과 향이 뛰어나다. 폴리페놀 함량이 적포도주보다 30%이상 많아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및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노화예방에 효과가 뛰어나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전통적인 여름철 과일로 분류되는 고창수박의 인기비결은 '당도·식감·품질'이다. 무더운 여름 갈증해소에 딱 맞는 제철과일인 고창수박의 향긋한 단맛은 전국의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고창 수박은 성내면, 무장면, 공음면, 대산면 등에서 875농가가 965ha를 재배하고 있다. 농가들은 매월 회의와 기술교육을 통해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업해 수박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임재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현장기술 실증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진기영 축제위원장은 "코로나19로 면역력 증진과 원기회복에 좋은 고창복분자와 수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온라인 축제(비대면 프로그램)와 오프라인(승차구매 판매)을 병행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송일/기자

진안군 산림유관기관,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진안군 산림유관기관들은 2일,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촌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운면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진안군 산림과,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진안군 산림조합 직원 등이 일손돕기를 시행하자고 합심해 진행됐으며, 각 기관 직원 20여명이 참석해 백운면 동창리 과수 농가를 찾아 사과 적과를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과수농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 많았는데 진안군 직원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적기에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용주 산림과장은 "영농철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며, 바쁜 와중에 일손돕기에 참여해 준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조합 직원들에게 고맙고, 앞으로도 어려운 농가를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종철.이희철/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한캐나다대사와 공동협력 모색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기후변화 대응 등 논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8일 마이클 대나허(Micheal Danagher) 주한캐나다대사와 만찬간담회를 갖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 등 전남도와 캐나다 간 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간담회는 이날 광양항에서 열린 북극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방선행사에 참석한 마이클 대나허 대사의 면담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 지사는 지역 현황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회복 상황, 지역 농수산물 수출전략, 캐나다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설치계획 등 도정 현안을 소개하고, 각 분야에 대한 발전적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 개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캐나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캐나다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후변화대응 선도국가 중 하나다.

김 지사는 "남해안 남중권은 지리·환경적 여건상 글로벌 기후 이슈 논의에 적합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COP 개최의 최적지"라며 "전남은 올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캐나다와 기술협력, 공동연구, 기업 투자 유치,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활발한 교류사업도 제안했다.

마이클 대나허 대사는 "전남도의 아마존 브랜드관 개설과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전남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대사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남도와 캐나다 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대나허 대사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한국통이다. 1987년 캐나다 외교부에 입문한 이후 2018년 9월 주한캐나다대사로 부임하기까지 3회에 걸쳐 약 10년간 한국에서 근무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전쟁 가평전투에 대한 책자를 내기도 했다.

김영안/기자

권오봉 여수시장, 돌산 진모지구 '노량' 영화 촬영장 방문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8일 오후 영화 '노량' 촬영이 한창인 돌산 진모지구 영화 촬영장을 찾았다.

㈜빅스톤픽쳐스 김한민 감독과 함께 수전에서 활약한 거북선, 판옥선, 성곽, 이순신 처소, 운주당, 명군 진영 등 실제와 같은 형태로 재현되어 있는 영화촬영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설명을 들었다.

영화 촬영 후 구조물 시설 존치 및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대규모 시설 투자와 영화 촬영 스텝 등 유입에 따른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조명한 두 작품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전라좌수영의 본영이었던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한층 더 빛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돌산 진모지구에서는 영화 '한산'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세트장 조성과 촬영을 마쳤으나 코로나19로 개봉은 아직 미정이다.

영화 '노량-죽음의 바다'는 5월부터 6월까지 1598년 겨울, 노량 바다에서 벌어진 임진왜란 이순신의 마지막 해전을 촬영하며, 내년에는 드라마 '7년 전쟁'이 촬영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체육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

유달경기장 부지 매각대금이 완납됐다.

시에 따르면 유달경기장 매각을 낙찰받은 서울 소재 중견업체는 지난 7일잔금 843억여원을 납부했다. 이로써 지난 4월 8일 납부한 계약금 93억여원을 포함해 유달경기장 부지 매각대금은 936억7천4백만원이 완납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업체측의 일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절차와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달경기장 부지는 최고가방식의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이 진행됐는데 지난 4월 1일 개찰 결과 936억7천4백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당초 매각예정가인 281억3천만원보다 333% 높은 금액이다.

시는 유달경기장 부지가 전국의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며 파격적인 금액에 매각된 것은 높아진 도시브랜드 가치를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목포는 신재생에너지·수산식품·관광 등 3대전략산업이 1천억원대의 정부 사업과 맞물리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활발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양산단이 코로나 장기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분양률이 90%를 넘어서는 한편 지난해에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매각대금 활용 방안을 심사숙고해 온 시는 당초 취지에 맞게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에 4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 공사가 진행중인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에는 국비 200억원, 도비 230억원, 시비 490억원 등 총 92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는 반다비체육센터 · 국제축구센터 · 실내체육관 등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현안사업과 지방채상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달경기장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전국 체전 대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시 재정 운영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담양군, 지역균형뉴딜 사업 공모 1차 선정… 대국민 온라인 투표 진행

담양군이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공모 1차에 선정, 대국민 온라인 투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공모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접수된 사업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담양의 '대나무 R&D 기반 구축 및 녹색환경 전환사업'을 포함한 40건의 사업이 최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에서 맞붙게 된다.

최종 선정은 서면심사(50%)와 온라인 투표(50%), 발표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대국민심사는 오는 10일부터~14일까지 진행한다.

군이 계획하고 있는 '대나무 R&D 기반 구축 및 녹색환경 전환사업'은 지역의 대표적 자원인 대나무를 6차 산업으로 육성,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2023년까지 총 152억을 투자해 대나무 신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나무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식물로써 다양한 대나무자원 확보, 보존 및 관리와 다양한 대나무산업 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대나무산업이 담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민 투표에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홍곤/기자

광주광역시, 민·관 협업으로 재난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9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대한토목학회 광주, 전남지회와 119토목구조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현장 대처를 위한 24시간 현장 자문 및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전문가의 24시간 현장 지원 체계가 없어 응급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개선하고,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토목학회는 119토목구조대를 구성 및 운영하며,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주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119토목구조대는 대한토목학회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재능기부로 하천제방 붕괴, 비탈면 유실, 산사태, 옹벽붕괴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교수, 기술사를 포함한 전문가 39명이 참여하며, 지역사회 재난 상황 시 응급 복구와 시민 안전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광주시, 자치구와 119토목구조대 간 핫라인 등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 시 24시간 응급조치와 기술자문 같은 상호 협력하고, 재난형장 등의 확인과 응급조치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이용섭 시장은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공사현장 사고발생 등 각종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골든타임 내 응급복구와 신속대처가 가능해지고 시민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119토목구조대가 안전한 광주를 실현하면서 자원봉사가 광주 문화로 자리매김하는데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19토목구조대는 지난해 부산에 이어 광주시에서 전국 두 번째로 조직됐다.

김덕윤/기자

대전시-한컴그룹, 2021 제1회 MARS 월드포럼 성료

17명 국내외 저명한 석학들과 미래선도기술과 비전 모색

대전시와 한컴그룹(회장 김상철)은 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모빌리티, 로봇이 AI를 만나는 미래 세상'이라는 주제로 '2021 제1차 MARS 월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하 메시지를 비롯, 지역 국회의원들의 축하영상과 KAIST, 충남대, 한밭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육군 등 과학수도 대전을 이끌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모빌리티, AI, 로봇과 우주를 포괄하는 첨단기술 분야 17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특별강연을 통해 드론, 로봇 등 관련 기술과 산업에 대한 다양한 육성방안을 제언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 강연자들은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오프라인 참석자는 50명 이내로 제한됐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조연사로 미국 NASA Solar System Ambassador 폴윤 교수와 연세대학교 미래항공우주기술센터장인 이동규교수는 NASA의 화성탐사 프로젝트와 우리의 우주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또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를 개발하고 휴먼노이드 로봇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UCLA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로봇 연구소 로멜라 소장인 데니스 홍 교수도 영상으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주요 강연자는 ▲모빌리티분야에 국토교통부 나진항 미래드론교통 담당관, 프랑스 Parrot사의 Chris Roberts 마케팅총괄, 항공우주연구원 황창전 단장,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 ▲항공우주분야에는 박기태 공군 우주처장,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박사, 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안재명 교수가 각각 연사로 나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경만 과장, 엔비디아코리아 함흥용 전무, 인텔코리아 김준호 전무 ▲로봇분야는 육군 드론봇전투발전센터 서정원 센터장,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정호 대표와 실리콘밸리의 B GARAGE 김영준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이번 월드포럼은 지난 2월에 있었던 대전시와 한컴그룹의 한국형 디지털 뉴딜의 중심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을 위해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성사됐으며, ICT 융복합 대표기업인 한컴그룹과 국내 뉴딜 산업 선도도시인 대전시가 상호 협력한 결실로 평가된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은"한컴그룹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대전시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MARS 월드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항공우주, 로봇, 인공지능, 모빌리티 등의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과 연구대학이 집적한 대전시의 인프라와 한컴그룹이 가진 첨단기술이 협력하여, 앞으로 명실상부한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거듭나 국내 뉴딜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또 한번의 진화 '공주페이', 배달앱 및 카탈로그 서비스 시행

가맹점 배달 수수료 2% 부담, 온라인 쇼핑몰 기능 탑재

공주시가 충남 최초로 선보인 모바일 지역화폐 '공주페이'가 배달앱과 카탈로그 서비스 기능이 본격 탑재되면서 다시 한번 진화를 선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공주페이는 현재 시 인구의 절반을 넘는 7만 1,000여 명이 가입, 경제인구의 3분의 2가 사용하며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2019년 8월 발행 이후 지난달 누적 1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충남도내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액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승승장구하고 있는 공주페이가 약 1년여의 준비작업을 거쳐 이달 말 배달앱과 카탈로그 서비스 기능을 본격 개시한다.

배달앱은 주문 단계부터 수락, 상품 준비, 배달 연결 등 가맹점과 소비자의 상품 구매 및 배송에 관한 일련의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는 민간 배달업체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가맹점의 경우 2%라는 저렴한 수수료로 부담을 크게 덜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몰 기능을 담당할 카탈로그 서비스는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사진 이미지와 문자로 게시해 소비자가 검색, 구입이 가능하도록 꾸며진다.

이에 따라 홍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가맹점의 어려움을 돕는 한편,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어 영세자영업자의 창업 등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페이 앱 안에서 지역 생산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선보이고 소비자는 지역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달 말 배달앱과 카탈로그 서비스를 시행한 뒤 오는 8월 주문에 따른 배달뿐 아니라 배송과 픽업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

김정섭 시장은 "공주페이가 지역에 빠르게 안착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며, "배달앱과 카타로그 서비스 등 보다 진일보한 공주페이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최승준 정선군수, 농림식품부 방문 행복한 농촌 주요현안 논의

최승준 정선군수가 9일 세종시 중앙부처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군수는 이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비롯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정부차원의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교부세 지원 감소와 강원랜드 카지노 장기휴장에 따른 세입 감소로 농업·농촌의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선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상생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체 인재·조직 양성, 사업기반 조성, 특활화 지원 등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도 42호선 중심시가지 우회로 지역 쇠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정선군 중심권과의 물리적 거리감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취약해 인구가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지역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담당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선정·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선군에서는 코로나19는 물론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 등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농업·농촌의 미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76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업분야 예산은 전년 335억 원 대비 41억 원(12%)이 증가된 376억 원이며, 미래농업 성장 동력확보 등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군의 농업분야 중점사업추진 방향은 농촌 거점기능 강화와 성반기 반구축, 안정적인 농가소득 경영체계 구축, 미래농업 성장 동력원 확보 등이다.

최근수/기자

천안시, 1조 2824억 원 목표 정부예산 확보 총력

천안시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부처의 예산안 편성 시기를 앞두고 그동안 국비 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전략을 검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95건, 목표액은 1조 2,824억 원으로, 시는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주요 국비 확보대상 사업은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1,988억 ▲천안아산 고속도로 건설 2,027억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1조 4억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131억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104억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750억 ▲천안 종축장 이전 409억 ▲축구종합센터 조성사업 108억 등이다.

시는 2월 9일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8일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달에는 기재부, 10월 중에는 국회 방문을 추진해 목표액이 모두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비 재원마련이 필수"라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과일의 고장 충북 영동군 시설복숭아 막바지 출하 한창!

충북 영동군의 시설복숭아가 한창 출하되며, 과일의 고장 영동을 알리고 있다.

영동군은 명품 복숭아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사시사철 최고 품질의 과일이 생산돼 과일의 고장이라 불리는 영동군이지만, 그 중 복숭아는 이 지역에서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황간면 금계리 박정기(64) 씨는 시설복숭아 막바지 수확작업에 한창이다.

이 지역 첫 출하농가인 박 씨는 8,000㎡ 규모의 하우스에서 조황, 수황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조생황도 '조황' 품종 출하를 시작해 바쁜 손길을 움직이고 있다.

조황품종은 청도복숭아시험장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숙기가 6월 하순경이고, 중량이 230g에 당도는 11브릭스 이상으로 품질이 우수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설하우스에서 자란 복숭아는 병·해충에도 강할 뿐만 아니라, 노지에서 재배한 복숭아보다 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노지 보다 2개월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

노지에서는 봉지에 씌워져 양분을 듬뿍 빨아들여 열매가 커 갈 시기이지만, 박 씨는 올해 막바지 수확작업을 하고 있다.

2kg, 2.5kg들이 상품을 출하하고 있으며, 출하 가격은 1kg당 평균가격이 2만 5,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가락동 중앙청과로 납품되어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 약 6t 정도를 수확하고 작업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농가의 경영노하우에 체계적인 기술보급과 영농지도로 힘을 보탰다.

2013년 영동군 시범사업으로 땅속의 냉기와 열기를 이용해 생육 적정온도를 유지해주는 '지중 냉·온풍을 이용한 시설과수 비용절감' 사업을 지원받아 경영비 30~40% 절감과 상품성 향상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영동군의 선진 농업기술과 농가의 소중한 땀방울이 합쳐져 최고의 과수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장인홍 소장은 "복숭아 재배에 적합한 토질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생산된 영동 복숭아는 전국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기술 보급 등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동군은 2836호 농가가 1259ha 면적에서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다.

이중 시설 재배농가들은 농가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수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동해시, 무릉계곡 베틀바위 산성길 두타산 협곡 마천루 준공식 개최

동해시는 동부지방산림청과의 "무릉계곡 숲길 공동산림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6월 10일 준공식을 통해 전면 개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된 "무릉계곡 베틀바위 산성길, 두타산 협곡 마천루 조성사업"은 동해시와 동부지방산림청의 공동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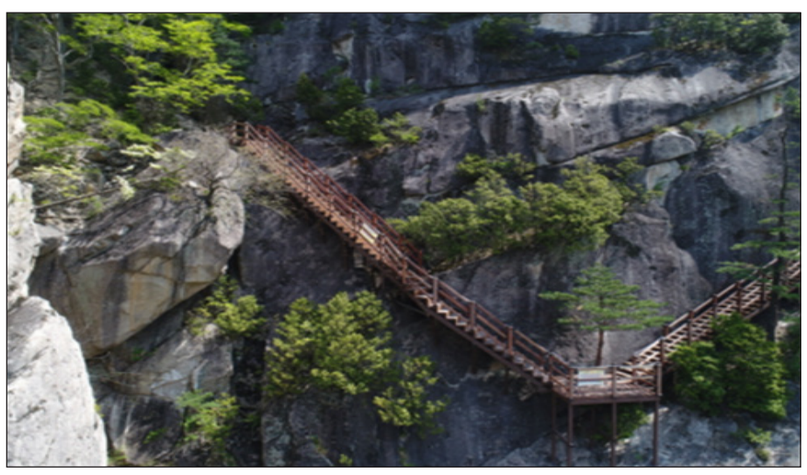
시는 총사업비 10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그동안 출입이 통제된 베틀바위를 시작으로 수도골, 박달령 입구를 지나 용추폭포로 연결되는 총연장 5.34㎞의 순환 등산로 코스를 조성했으며,

등산로 정비 뿐만 아니라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안전쉼터, 오르내리기 편리한 데크계단, 특색있는 안내판, 휴휴쉼터, 회양목과 서어나무 군락지 보호 등의 기존 등산로와 차별화된 시설을 확충해 이번에 사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준공식은 6월 10일 오후 2시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앞에서 지역 주민 및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경과보고, 공사관계자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 등 간소하게 행사를 진행될 예정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이번 "무릉계곡 베틀바위 산성길, 두타산 협곡 마천루 개방에 이어, 개장을 준비중인 무릉 별유천지, 삼화유원지 액티비티 체험시설은 기존의 무릉건강숲, 오선녀탕과 함께 하나의 무릉권역 관광벨트가 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파주시, ㈜케이비즈파주산단 고병헌 대표이사 산업포장 수상

파주시가 ㈜케이비즈파주산단의 고병헌 대표이사가 지난 7일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산업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7일 열렸다. 대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고병헌 대표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케이비즈파주산단 고병헌 대표는 ㈜코메드실업의 대표이기도 하며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국내 최초 게임 개발로 1989년 천만불 탑 수상과 2천만불 수출의 문을 연 성공한 기업가이기도 하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제23대 이사와 24, 26대 부회장을 재임하며 게임 산업 활성화에 따른 법률 도입과 제도개선에도 앞장섰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수원시 게임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파주시 적성일반산업단지 1,2차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으며 현재는 파주시 파평산단을 조성중이다. 또, 파주역 2단계 공모 시행사로도 선정돼 기업과 지역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고병헌 대표는 "오늘 수상을 계기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으로서 더욱 큰 자부심을 갖고 국가산업 발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파주시 지역발전에도 최선을 다하는 '케이비즈 파주산단'으로 거듭나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고병헌 대표는 기업가로서의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이사장으로 장학 사업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행복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임한 지난 3년간 '행복장학생 선발', '장학퀴즈 대회', '사진&영상 UCC공모전'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롭고 흡인력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총 389명의 장학생이 5억여 원의 장학 혜택 받는 등 파주시행복장학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획기적으로 이뤄냈다.

이와 더불어 기업 대표로서도 행복장학회에 3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장학금 기부를 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재)사랑나눔에도 8,3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항상 실천하는 모범 기업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영기/기자

함양군 함양제일고 박연주 선수 '전국체전 금메달이 보인다'

제49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400m 허들 짜릿한 역전 금메달 획득

함양제일고 3학년 박연주 선수가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400m 허들 여고부에 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하며 전국 최강 자리를 굳혔다.

함양군체육회에 따르면 6월 3일부터 7일까지 경북 예천군에서 열린 제49회 전국육상경기대회 결승에 출전한 한국 육상의 기대주 박연주 선수가 '1:04.24.'초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연주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는 5번 레인에서 경기 중반까지 상위그룹을 유지하며 레이스를 펼치다 마지막 허들을 넘은 후 40m 직선 구간에서 전력 질주를 다하며 2위 선수와 0.01초 차이로 짜릿한 역전우승을 거뒀다.

지난 전국 춘계육상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박연주 선수는 이번 금메달로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에서의 금메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서춘수 함양군수는 "전국대회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둬줘서 자랑스럽고 함양군의 위상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며"이번 수상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함양군민에게 기쁜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 송경열 군체육회장도 "선수들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훈련을 열심히 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남은 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부상없이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함양제일고 육상부는 경남도 대회 및 전국대회에 출전해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함양을 전국에 알리고 육상 종목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연주 선수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활동으로 훈련이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항상 응원하여 주신 어머님과 감독, 코치님께 감사 인사드린다"라며 "'하면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한 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서춘수 군수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군수실로 초청해 격려하는 등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함양군 체육 유망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광용/기자

익산시청 육상·펜싱부, 전국 최강팀 증명

육상부, KBS배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800m 1위 등 4명 입상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대회 최강자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와 펜싱부는 각각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와 제26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대회겸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육상부는 지난 실업육상대회 2관왕에 오른 신소망 선수는 KBS배 육상대회에서도 800m 우승을 차지하면서 여자 800m에서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승리의 기운을 이어갔다.

또한 남자 멀리뛰기에서 김영빈 선수가 2위, 원반던지기에서 신유진 선수와 김미연 선수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였다. 신유진 선수는 지난 실업육상대회 3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다.

펜싱부는 남자 에뻬 종목 정병찬 선수가 2위를 권영준 선수가 3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을 겸하여 국가대표 선발 가능성을 한 층 높였다. 여자 사브르 종목은 단체전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펜싱 강팀임을 다시 한번 알렸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우리시의 자긍심을 높힌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6월 13일부터 익산종합운동장에서 3,0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제50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시민에게 다시 한 번 희망과 용기를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좋은 지방정부 정책대회 시상금 전액기부

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과학체험교실 운영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9일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수상으로 받은 시상금 100만원 전액을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기부했다.

유성구는 지난 5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 정책대회에서 민선7기 과학브랜드 '유성 다과상'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 100만원은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과학체험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유성다과상의 정책목표인 과학문화 확산에 맞춰 영예롭게 받은 시상금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과학역량 증진을 위해 기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맞춤 정책을 발굴하고, 주민 눈높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용산구, 제4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

서울 용산구가 2021년 제4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을 위한 입법·소통 등 탁월한 업적으로 더 나은 사회 환경조성에 기여한 개인·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이를 주관하고 있다.

시상 분야는 종합·정책·소통대상으로 나뉘며 구는 '소통분야' 수상 쾌거를 이뤘다.

구는 민선7기 이후 '청년과 더불어 잘사는 용산'을 목표로 청년 정책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2019년 3월 구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한 뒤 2년(2019.5.~2021.5)에 걸쳐 '전국 최대 규모' 청년정책자문단(215명)을 구성·운영했으며 120억원에 이르는 청년일자리기금도 새롭게 만들었다.

특히 청년정책자문단은 취·창업에서부터 청년축제, 제도개선, 청년활동공간 등 10개 분과로 나눠 토론회, 정책 제안 등 활동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로 조직을 축소, 내실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겁내지 않고 청년정책 시작하기 : 청년정책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네트워크 위원(30명)은 오는 13일까지 모집,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활동한다.

구 관계자는 "청년과의 소통,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청년 와이낫 프로젝트, 알아두면 쓸데 있는 청년 잡학사전, 청춘3길 탐방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국제빌딩4구역 내 기부채납 시설(서빙고로17)을 활용한 '용산청년지음' 건립도 눈여겨 볼만하다. 용산청년지음은 710㎡ 규모로 서울시내 청년 커뮤니티 공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북카페, 힐링룸, 미니영화관 등을 갖췄으며 올해 ▲코넥터스 : 코로나19여도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 ▲더하기 프로젝트 ▲지음실험실 ▲용산청년공방 ▲지음토피아 ▲지음포레스트 등 사업을 벌인다.

이 외도 구는 청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동아리별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주간 행사 개최(9월 셋째 주 토요일 예정),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50만원 상당 용산사랑상품권) 지급, 전국 최저 금리(0.8%)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삶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7월 청년사업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정책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 왔다"며 "함께 해준 지역 청년들에게 수상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제4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리는 '2021. 제5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논산소방서, 인명구조사 시험 전원합격 쾌거

논산소방서 구조대원 3명이 지난 8일 시행된'2021년도 인명구조사 2급 자격시험'에서 전원 최종합격하는 쾌거를 안았다고 9일 밝혔다.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은 재난 현장에서 신속·정확한 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중·수상 구조, 산악 로프 하강·등반, 교통사고 구조 등 9개 과목의 고난도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심재은 소방교, 김남용, 박근형 소방사는 개인 휴식시간도 반납하며 훈련에 매진해 합격의 기쁨을 안았다.

김남석 서장은 "그동안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을 위해 열심히 훈련에 임해준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많은 소방대원이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대구시 북구청, '2021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대구 북구청이 6월 9일 대구시가 주관한 '2021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 본청과 8개 구·군, 공사, 공단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시민투표를 거쳐 2차 발표심사로 진행됐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북구청의 교복나눔 모바일 플랫폼(앱) 개발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에 선정됐다.

북구 교복나눔 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복나눔행사 개최가 불가한 상황에서 교복기증자와 수요자가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복을 기부하고 나눌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기획·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으로 학부모님들의 교복구입비 부담 완화 및 자원재활용,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과 함께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경진대회에 대구시 우수사례로 추천됐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켜 지역주민들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인천 남동구, 옛 수인선 누빈 협궤용 증기기관차, 인천시 등록문화재 등재된다

옛 수인선의 역사를 간직한 국내 최초의 협궤용 증기기관차가 운행 중단 23년 만에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재될 전망이다.

9일 남동구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소래역사관 광장에 전시된 협궤용 증기기관차(혀기-7형)를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등록문화재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넘고, 상징성과 역사성, 가치성을 가진 문화재를 대상으로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결정한다.

협궤용 증기기관차(혀기-7형)는 1927년(현재분 1952년) 수원기관차사무소에서 조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협궤용 증기기관차로, 1978년까지 수인선 등에서 운행했다.

운전실이 있는 몸체부, 주행부, 석탄과 물을 싣는 탄수차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영업 시에는 승객이 탈 수 있는 협궤객차를 몇 량씩 연결했다.

폐차 후에는 대관령휴게소에 전시되다 지난 2001년 인천시에 기증돼 남동구청 앞 공원에 설치됐고, 2008년부터 현재의 소래역사관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문화재 등록검토를 위한 현지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역사성, 희소성, 지역 상징성을 종합 고려할 때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궤용 증기기관차는 수인선 운행 중단 이후 대부분 폐차되고 현재 국내 6량만 남아있는데 이중 혀기-7형은 원형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또한 소래역과 소래철교 인근에 전시되고 있어 소래포구만의 독특하고 지역적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점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시는 7월 6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8월 중 최종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인천시 등으로부터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협궤용 증기기관차는 아픈 역사를 딛고 서민들의 발이 돼 준 수인선의 역사 자체"라며 "인천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옛 소래역을 비롯한 소래포구 일대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김해시, UN 세계 요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본고장 인도 전통 요가 선봬…SNS 생중계

김해시는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 가야테마파크 야외공연장에서 '2021 UN 세계 요가의 날 기념행사 및 가야명상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UN 세계 요가의 날은 정신적 안정에서부터 지구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요가의 긍정성을 알리기 위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제안으로 2014년 UN 총회에서 175개국 찬성으로 제정된 날로 매년 6월 21일이다.

'멈춤으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2019년 주한 인도대사(스리프리야 랑가나탄)의 제안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 올해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된다.

시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세부 방역계획 수립, 행사 전후 소독 실시, 참가자 입장 전 건강상태 확인, 참가자 명단 작성(사전 접수), 입장 인원 및 2m 거리두기 준수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방역관리 요원이 상시 점검한다.

또 소규모 행사인 만큼 비대면 참여를 위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전체 행사를 생중계한다. 단체별 송출 SNS와 채널명은 김해시요가회 유튜브, 가야문화진흥원 페이스북·인스타그램(채널 gaya_hon)·유튜브(가야의혼전문예술단체), 인도문화원 페이스북(iccseoul)이다.

요가의 날 기념행사는 김해시요가회와 가야문화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주한 인도문화원이 함께 참여해 지역 단체의 요가, 명상, 예술 공연과 인도 전통 요가가 한데 어우러지는 뜻깊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

지역 예술인들의 신나는 난타공연과 '허왕후, 장군차를 전하다'라는 시낭송 시극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주한 인도문화원 소속 강사의 요가시연과 이완·호흡 명상, 묵언 걷기 명상 등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3시간가량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난도가 낮은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참가할 수 있고 또한, 명상요가가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김해체육관에서 사전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사전행사에는 60여 명이 이완명상·블라인드 워킹 등에 참가하여 사색과 명상에 잠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본행사와 사전행사는 김해시요가회(문자, 전화) 사전 접수 후 참여할 수 있으며 본행사는 100명, 사전행사는 50명까지 모집한다. 본행사 일 우천 시 김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이 요가·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얻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김해와 인도의 오랜 인연이 세계 요가의 날 기념행사 개최로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행사 참가자들에게는 김해시요가회와 주한인도문화원에서 준비한 요가매트, 티셔츠 등 기념품을 제공하며 문의는 김해시요가회로 하면 된다.

최광용/기자

양평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양강이야기"사업 완료

양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미술 프로젝트 "양강이야기"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설자리를 잃어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미술협회 양평지부의 38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양평을 배경으로 한 소설 '여울넘이'의 챕터별 주제를 표현한 9개 미술작품을 양근천변 산책로 일원에 설치했다.

소설 '여울넘이'는 조선 18대 왕 현종의 어머니인 왕대비의 국상을 맞이해 뱃길로 대여(大輿) 운반을 위해 뱃길을 가로 막는 대탄바위를 없애려는 사람들과 남한강과 그 바위에 기대어 살아가는 양근 지역 사람들의 갈등이 이야기의 큰 줄거리다.

첫 번째 작품인 '세곡선'은 기존 와글와글음악회 공연장의 노후된 계단을 보수하며 중앙 부분에 세곡선 배와 강을 표현한 트릭 아트 작품으로 김태규, 강윤정, 곽광분, 표찬용, 김창환, 김태걸, 배상욱, 신창섭, 안치홍, 정충일, 황한나 작가가 참여했다.

두 번째 작품인 '속빈 거북'은 견고한 재질과 형형색색의 타일로 제작된 작품으로 비탈길을 오르는 거북이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내일을 향한 묵직한 희망을 감상할 수 있다. 강성봉 김경희 정경수 작가가 참여했다.

세 번째 작품은 '동패와 단패'로 소설 속 주인공인 동패와 단패의 만남을 주제로 한개의 장면을 3개의 레이어로 구성, 작품을 멀리서 바라볼 때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어 관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최병춘, 안문훈, 홍명숙 작가가 참여했다.

네 번째 작품인 '나그막'은 소설 속 나그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철판을 커팅한 후 컬러풀한 색상을 도색해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최용대, 구명회 작가가 참여했다.

다섯 번째 작품은 '대사공들'이다. 나무쐐기를 이용하는 조각 기법으로 화강암 조각에 당대 고난에 찌든 민중들의 삶의 얼굴을 현실감있게 표현했다. 이정수, 이태경, 윤현경, 조명숙 작가가 참여했다.

여섯 번째 작품인 '거슬러 오르는 사람들'은 물고기들이 선단을 보호하며 인도하는 장면을 스테인레스 스틸 조각 작품을 통해 역동적으로 형상화했다. 정하응, 최운영, 최옥경 작가가 참여했다.

일곱 번째 작품인 '대탄바위 사람들'은 대탄 바위를 부수는 석공과 군졸들, 그리고 이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지역민들의 모습을 세 장면으로 나눠 표현했다. 안경문, 이윤호, 김상섭, 정일랑, 이우설 작가가 참여했다.

여덟 번째 작품 '낭청정동설'은 양강(남한강)의 물줄기가 힘차게 튀어오르는 형상을 푸른색 물결과 돌, 바위 등으로 표현한 대형 부조 벽화 작품이다. 박초승, 박기성, 김영대 작가가 참여했다.

아홉 번째 작품 '총호사의 고민'은 오봉일월도를 응용해 표현한 벽화 작품으로 쌀과 항아리를 실은 세곡선이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모습을 담았다. 장은숙, 염기현 작가가 참여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은 물론,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문화예술도시 양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정읍시, "중국 서주시 아동화(兒童畵) 작품 관람하세요"

정읍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강소성 서주시 아동들의 미술작품 전시회가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열리고 있다.

정읍시가 후원하고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지회와 한국미술협회 정읍지부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들의 작품 속에 담겨있는 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양국이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동화 교류전을 통해 정읍시와 중국 서주시가 자매도시로 예술 분야 상생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게 됐다.

전시회에서는 중국 서주시 아동들의 다양한 미술작품 30점을 만나볼 수 있다.

아동들의 그림답게 흰색과 까망, 노랑, 초록, 파랑 등의 원색이 어우러진 거침없는 붓질은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은 채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 아동들의 정신세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시는 중국 서주시 아동들의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시민들이 예술적 감각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예술의 혼이 살아있는 정읍에서 중국 서주시 아동화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양국이 예술 분야 상생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와 서주시는 2000년 9월 27일 자매도시를 맺었다.

그동안 상호교류단 32회 방문과 중·고등학생 홈스테이, 한문화축제, 체육 대표단 방문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김송일/기자

강진아트홀, 최신영화'내일의 기억'상영

6월 15일 오후 3시·7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350명 선착순 무료 입장

강진아트홀은 오는 15일 오후 3시와 7시, 최신 영화인 '내일의 기억'을 상영한다.

영화 '내일의 기억'은 여성 특유의 오밀조밀하고 밀도 높은 글을 만들어가는 서유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서예지와 김강우가 주연을 맡았다.

기억을 잃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수진(서예지 분)이 기억의 퍼즐을 맞춰갈수록 남편 지훈(김강우 분)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다.

강진아트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350명을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 후 관람석 띄어 앉기를 시행한다.

입장시 손소독, 발열체크후 37.5도 이상과 호흡기 질환자(기침 등) 마스크 미착용 관람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15세 이상 관람가이며(보호자 동행 시 이하 연령도 관람 가능), 관람시간은 99분이다. 기타 문의는 강진아트홀로 하면 된다.

김영안/기자

경북! 무슨129!, 예천편 개최... 그때 그 삼강으로

3대문화권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예천 삼강문화단지에서 개최

경상북도는 11일 예천 삼강문화단지에서 2021년 3대문화권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경북! 무슨129!'(예천편)을 개최한다.

'경북! 무슨129!'는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3대문화권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프로젝트로 기획되었으며, 예천 삼강문화단지를 비롯하여 문경 에코랄라 등 도내 3대 문화권 사업장을 이어가며 공간의 특색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예천 삼강문화단지는 낙동강 연안의 강문화·역사·생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특화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전시 및 체험, 교육 등이 하나의 공간에서 가능하도록 조성된 가족형 문화체험관광지구로, '경북! 무슨129!'(예천편)에서는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공간을 더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삼강주막은 낙동강을 통하는 마지막 황포돛배의 종착지로, 당시 보부상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한양으로 향하는 요충지였다는 데 착안, '옛 조선의 주막으로 돌아간다.'는 시간여행 콘셉트의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관람객들은 직접 조선시대 화폐인 상평통보를 가지고 다니며, 패랭이모자 만들기, 돛배 만들기, 사발통문 쓰기 등 체험을 할 수 있고(be THE 보부상), 조선의 시간여행자들(연기자)과 소통하며 조선시대의 삶을 즐겁게 재현하며 느껴볼 수도 있다.(back to THE 삼강)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막걸리 홍보관에서 막걸리 등 경북지역 전통주를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시음존, 도내 주민사업체 상품을 현장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된다. 체험 프로그램 존이 문을 여는 오전 11시 오픈기념 경품추첨 이벤트를 비롯해 종료 시(오후 5시)까지 삼강나루캠핑장&파브르펜션 숙박권, 경북투어패스 등 경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후 5시, 강문화전시관 야외 광장 무대에서는 이번 이벤트를 기념하는 부대행사로 대한가수협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전 국민 희망 콘서트(주최/주관: 대한가수협회, 경상북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천군)'가 개최된다. 사전 신청한 관람객(300명 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콘서트에는 가수 설운도와 박상민, 이자연, 홍자, 류원정, 잠비노 등 다양한 장르의 유명가수들이 흥을 돋운다.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예천 삼강문화단지를 비롯한 도내 3대 문화권 관광인프라 확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며, "관람객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방역활동으로 경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거리두기 준수를 통한 안전여행의 즐거움을 선보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북! 무슨129!' 다음 편은 7월 문경 에코랄라 및 가은읍 일대에서 열린다. 문경편은 지역 청년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MZ세대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세기/기자

경기도, 같은 곳인데 땅값이 땅+주택가격보다 비싸다고?

성불일치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 대상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는 이를 한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5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이들 총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런 1차 점검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개별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자문 요청을 할 경우 도가 직접 검증을 통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별부동산 지도·감독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부동산(토지+주택) 공시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의견제출방법개선 등 부동산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최근수/기자

충청남도 '3대 위기 극복'…도정의 핵심, 현장을 만나다

양승조 지사, 읍면동장 온·오프라인 현장 간담회…우수사례 선정

양승조 충남지사가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도정의 바로미터'인 15개 시군 읍면동장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8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양승조 지사, 207명 읍면동장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3대위기 극복 읍면동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7기 도정핵심 정책인 3대 위기 극복의 읍면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읍면동장님과 함께 만들어갑니다'를 주제로 개방형 읍면동장 사례 청취, 3대 위기 극복 우수사례 평가대회, 도지사 특강과 토크콘서트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우수사례 평가대회는 시군에서 제출한 43개 사례 중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 6개 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수요응답형 공공형버스 시범운영' 사례를 발표한 서천군 문산면이 수상했다.

문산면은 양극화 분야에서 주민수요에 따른 남다른 서비스로 주민 만족과 마을 화합을 이루는 성과를 거둔데 대해 전문가와 읍면동장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외 사례도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우수상은 '산지유통센터(APC) 운영 협력에 따른 소득 불평등 해소 사례'를 발표한 금산군 추부면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사례를 발표한 아산시 온양4동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독거노인 사랑의 빨래방' 사례를 발표한 논산시 벌곡면, '아이가 행복한 장난감 은행 운영' 사례를 발표한 청양군 청양읍, '콜라보의 끝판왕! 보건복지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발표한 서천군 한산면이 수상했다.

이어진 3대 위기 극복 특강을 통해 양지사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극복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며 "사회 양극화 극복은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충남은 '도민안전보험 가입', '어르신 놀이터 조성', '행복키움 수당',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등 3대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행정 최일선 읍면동장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의 역할과 책임, 현장의 경험 사례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공유됐다.

특히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충남공항 유치, 서해선 KTX 연결로 충남이 준비해야 할 변화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읍면동과의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승조 지사는 "읍면동장과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청취할 것"이라며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3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강원도-중소기업중앙회 취직 사회책임제 업무협약 체결

취직 사회책임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상호 협력

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기업에서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월 10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과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융자와 3년간 고용유지 시 1인당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창출 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신청·접수가 완료 되었는데, 5,400여개 기업에서 16,000여명의 정규직 채용 지원신청을 하였다. 당초 목표였던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도와 시·군에서는 신청기업 모두를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도내 1만명 이상의 정규직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업·고용불안·저임금 등의 일자리 현안 해결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뜻을 같이 모으기로 합의하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6월 9일 11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에서 '강원형 일자리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강원형 일자리 정책'에는 2021년도에 특별히 시행한 '취직 사회 책임'와 강원도 대표 일자리 정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심공제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표 사업인 '노란우산 공제사업'도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취직 사회책임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더불어 전국단위 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강원도 및 전국의 중소기업이 '취직 사회책임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기업성장과 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전라남도, 코레일유통과 마을기업 판로 확대 맞손

전라남도와 코레일유통(주), (사)전남마을기업협의회는 8일 전남지역 마을기업 판로 확대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조형익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정송임 (사)전남마을기업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지역 25개 우수 마을기업의 187개 제품이 코레일의 지역특산품 판매장인 '고향뜨락'에 입점한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이로써 우수 전남 마을기업 제품이 코레일유통의 판매망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마을기업 등의 홍보 및 판로지원에 협력하고, 마을기업협의회는 제품의 품질 향상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전남도는 두 기관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코레일유통(주)은 전국 기차역과 수도권 광역 전철역 등에서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광고, 물류 지원 등 사업을 운영하는 코레일의 철도 관련 유통 판매 계열사다. 최근 청년층 창업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마을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마을기업 증가세가 가파르며, 지난 2019년, 2020년 연속해서 전국 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상을 수상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전남도의 지원과 주민의 열정이 합쳐진 결과다. 전남도는 양적인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내실 있게 발전하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조형익 대표이사는 "전남의 마을기업의 큰 발전을 위해 코레일유통이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마을기업인에게 감사하다"며 "코레일유통을 통해 전남의 우수한 마을기업 제품이 전국으로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는 마을기업인과 함께 양질의 상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안/기자

전 세계 철도산업 최신 트렌드가 부산에 모인다!

수출 상담회·철도 관련 채용설명회·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

부산시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1, 2홀에서 「2021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RailLog Korea 2021)」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은 세계 4대 철도산업 전문전시회이자 국내에서 유일한 철도 관련 전문전시회로 200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부산시와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한국철도협회·벡스코·메쎄프랑크푸르트코리아가 공동 주관한다.

특히, 올해는 세계 4대 철도전시회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하거나 연기하지 않고 유일하게 개최하는 전시회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철도산업의 대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전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95곳 약 810개 부스 규모의 참가가 확정되었다. 국가철도공단, SR, 부산교통공사 등 철도 시행청은 물론 현대로템, 우진산전 등 국내외 철도차량 제조사를 비롯하여 LG디스플레이 등 유관 산업군까지 대거 참여해 세계 철도산업을 한눈에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주최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스마트 철도 기술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철도망 건설 등으로 철도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공단의 역할을 VR, 4D, 홍보영상 등으로 선보이며 ▲SR은 열차 이용에 필요한 과정 및 제공되는 서비스 등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토록 전시한다.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부산교통공사는 전동차 모의 운전 연습 및 기관사 MR 교육훈련 체험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국내 수소전기 철도차량 기술 선두기업인 현대로템은 친환경 미래 철도 운송 수단인 수소전기 트램 및 수소 충전설비 패키지와 32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등을 전시하고, 디지털 서비스(스마트 유지 보수)와 KTCS 신호시스템을 선보인다. ▲철도차량 제작 전문기업인 우진산전은 별내선(서울 8호선) 연장을 위해 신규 개발한 도시철도 차량을 전시한다. ▲LG 디스플레이는 철도차량 내 유리에 투명 OLED를 적용하여 기존 철도 유리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주는 차별화된 정보표시기 제품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와 공동 주관하는 수출상담회는 현장 개최와 더불어 화상상담회, 현장 실황 상담회를 열어 '코로나 일상' 시대에 걸맞은 상담회로 진행한다. 아울러, 부산경제진

흥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사·공단, 철도기업 채용설명회와 산·학·연·관 철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한자리 모이는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등 부대행사를 통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동북아시아 교통 물류의 중심이자 유라시아대륙철도의 관문 도시인 부산에서 10회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라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자리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업계관계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데이로 운영되며, 19일은 일반인 관람이 가능하다.

남궁영기/기자

영화 '인질' '배우 황정민' 인질로 잡혔다! 여름 개봉 확정, 런칭 포스터 공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리얼리티 액션스릴러 '인질'이 여름 개봉을 확정하고 런칭 포스터를 공개했다.

관객들의 몰입도와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영화 '인질'이 여름 개봉을 확정하고 파격적인 런칭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인질'은 어느 날 새벽,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납치된 배우 황정민을 그린 리얼리티 액션스릴러. 작년 여름 435만 관객을 동원했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부터 '곡성', '검사외전', '국제시장' 등 수많은 흥행작들의 중심에서 극을 이끌며 '믿보황'이라는 별명을 얻은 배우 황정민. 그가 '인질'을 통해 자기 자신을 연기하며, 또 한번 인생 캐릭터를 갱신할 예정이다.

올여름 개봉 확정 소식과 함께 공개된 런칭 포스터는 황정민이 인질범들의 아지트에 결박된 채 묶여있는 파격적인 비주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로프와 청테이프로 결박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황정민의 뒷모습만으로도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낸다.

또한 "황정민"이라는 간결한 카피는 인질이 된 황정민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극강의 리얼리티를 선사하는 영화의 컨셉과 어우러져 한층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 황정민이 어느 날 갑자기 '인질'로 붙잡힌 후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기까지, 영화는 모든 장면에서 짜릿한 긴장감과 액션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극강의 몰입도를 선사하며 '리얼리티 액션스릴러'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더불어 '인질'은 '베테랑', '엑시트'등 매년 여름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품을 선보여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영화사 외유내강이 '부당거래' '베테랑'에 이어 다시 한번 황정민과 만나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영화사 외유내강의 노하우와 신인 감독 필감성의 패기가 만나 '배우 황정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인질로 잡힌 사상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그려내었을지 벌써부터 예비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강렬한 런칭 포스터를 공개하며 리얼리티 액션스릴러의 탄생을 알린 영화 '인질'은 여름 개봉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알고있지만' 한소희X채종협 무슨 관계?! 서로를 향한 '심쿵' 꽃미소 → 빗속 달콤한 눈맞춤

'알고있지만' 채종협이 한소희만 바라보는 순정파 청년으로 변신한다.

오는 19일 방송 예정인 JTBC 새 토요스페셜 '알고있지만'(연출 김가람, 극본 정원, 제작 비욘드제이·스튜디오N·JTBC스튜디오/원작 네이버웹툰 〈알고있지만〉(작가 정서)) 측은 10일, 유나비(한소희 분)와 양도혁(채종협 분)의 빗속 만남을 포착했다. 유나비를 향한 양도혁의 싱그러운 미소가 설렘과 함께 호기심을 자극한다.

동명의 인기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알고있지만'은 사랑은 못 믿어도 연애는 하고 싶은 여자 유나비와 연애는 성가셔도 썸은 타고 싶은 남자 박재언(송강 분)의 하이퍼리얼 로맨스를 그린다. 지나치게 달콤하고 아찔하게 섹시한, 나쁜 줄 알면서도 빠지고 싶은 청춘들의 발칙한 현실 연애가 차원이 다른 설렘과 공감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다.

공개된 사진 속 하나의 우산 아래 나란히 선 유나비, 양도혁의 모습이 두근거리는 설렘을 자아낸다. 양도혁을 마주한 유나비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떠오른다. 양도혁 역시 해맑은 웃음으로 화답한다. 순수한 매력으로 유나비에게 다가온 양도혁. 두 사람의 빗속 만남이 어떤 인연으로 이어질지 기대를 자극한다. 이어 양도혁은 어깨가 빗물에 흠뻑 젖는 것도 모른 채 유나비쪽으로 우산을 기울이고 있다. 더없이 다정한 양도혁의 존재는 유나비의 마음에 어떤 의미로 스며들게 될지 궁금해진다.

한소희가 맡은 '유나비'는 허무하게 끝난 첫 연애로 사랑을 믿지 않는 인물. 그러나 박재언을 만난 후, 그에게 운명적인 끌림을 느끼면서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간다. 채종협은 짝사랑 말고 진짜 연애를 해보고 싶은 남자 '양도혁'을 연기한다. 그에게 유나비는 고향 소꿉친구이자 첫사랑. 십 년 만에 유나비와 재회한 순간, 그는 다시금 사랑을 느낀다. 그리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의 속도에 맞춰 직진을 시작한다.

알고있지만' 제작진은 "양도혁은 어릴 적 좋아했던 유나비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순정파이다. 상냥함에 직진 매력을 더한 '감자 청년' 양도혁의 등장이 유나비와 박재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 달라. 박재언과 완벽하게 다른 매력의 양도혁은 흥미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JTBC 새 토요스페셜 '알고있지만'은 10부작으로 주 1회 편성을 확정 지었다. 오는 6월 19일(토) 밤 11시 첫 방송 된다.

현유주/기자

'K-POP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 멜론 스테이션 완전체 출연 확정!

새 앨범 'Taste of Love' 발매에 맞춰 11일 오후 1시 공개

K-POP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가 새 미니 앨범 'Taste of Love' 발매에 맞춰 멜론의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인 멜론 스테이션에 완전체 출연을 확정했다.

멜론은 10일 "K-POP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직접 출연해 진 행 하 는 뮤직토크쇼이자 멜론스테이션의 대표 프로그램 '오늘음악'에 트와이스가 출연한다. 트와이스의 신보 발매 당일인 오는 11일 오후 1시 멜론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트와이스는 '오늘음악'을 통해 11일 오후 1시 발매되는 'Tast of Love'의 앨범 소개는 물론 앨범 준비 과정 중 있었던 에피소드 등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할 한 뉴 서머송 'Alcohol-Free'로 활동에 나서는 만큼 직접 뽑은 멤버 별 여름 플레이리스트를 포함해 여름을 주제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이날 트와이스는 사랑에 빠진 트와이스의 매혹적인 모습을 담은 열 번째 미니 앨범 'Taste of Love'를 발매하고 완전체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발매한 'Eyes wide open' 이후 8개월 여 만의 컴백으로 가요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 타이틀곡은 보사노바에 힙합을 결합시킨 트와이스표 뉴 서머송 'Alcohol-Free'로 사랑에 빠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표현한 곡이다.

'오늘음악'은 아이돌부터 실력파 싱어송라이터까지 다양한 뮤지션이 직접 DJ가 되어 진행하는 멜론스테이션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신보 발매 당일 아티스트가 직접 출연해 신곡 설명과 근황 토크 등을 전해 유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멜론 스테이션은 아티스트가 직접 진행하는 오디오 콘텐츠로 박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영화& 박선영입니다', 매월 가요계의 유망주로 선정된 아티스트가 직접 방송하는 '이 달의 루키', 정기고의 'SOULBY SEL', 바리톤 정경의 '브라보 클래식', 뽀로로의 '뽈륨을 높여요', '멜론 트롯쇼', 멜론에서 즐기는 특별한 책방 '브런치 라디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광수/기자

제이슨 스타뎀 복귀작 영화 '캐시트럭', 전체 예매율 1위

제이슨 스타뎀 2년만의 스크린 복귀작 '캐시트럭'이 오늘 개봉과 동시에 전체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흥행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로튼 토마토 팝콘 지수 92%,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캐시트럭'이 6월 9일 바로 오늘 개봉하는 가운데, 전체 예매율 1위를 유지(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6월9일 오전 7시 기준)하면서 본격적인 흥행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2위 '크루엘라'와는 2배 이상의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점에서 흥행 독주에 들어섰다는 평이다. 아울러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비롯해 다음까지 모두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언론과 평단, 관객들의 호평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어 흥행세는 당분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늘부터 극장을 찾는 관객들은 가이 리치 감독의 친필 메시지를 비롯해 대규모로 준비된 특별한 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할리우드 대작의 필수 코스이자 제이슨 스타뎀의 활약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IMAX와 돌비시네마 등 다채로운 상영 포맷으로도 관객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캐시트럭'은 캐시트럭을 노리는 거대 강도 조직에게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현금 호송 회사에 위장 취업 후 처절한 응징을 예고하는 액션 영화이다.

개봉을 맞아 압도적인 수치로, 전체 예매율 1위를 유지하며 앞으로의 흥행을 기대하게 하는 '캐시트럭'은 바로 오늘 전국 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전순희/기자

배우 유진, 비하인드 컷조차 화보로 만드는 비주얼…'미모 열일 중'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통해 밀도 있는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 내고 있는 배우 유진의 독보적인 아우라가 담긴 화보 비하인드 컷이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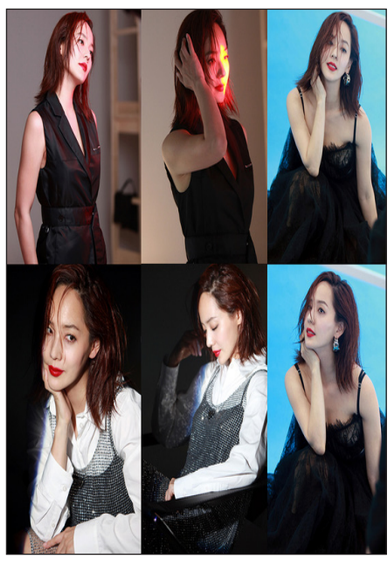
소속사 인컴퍼니는 10일 유진의 화보 현장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유진은 다양한 콘셉트 속에서 각기 다른 매력과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화보는 유진이 평소 보여줬던 밝은 이미지와 대비되는 시크함과 카리스마를 강조한 콘셉트로 진행됐다. 올블랙 민소매 슈트를 비롯해 주얼 장식의 화려한 원피스까지 다양한 의상을 소화한 유진은 소품 하나 없이 오롯이 몸짓과 표정연기만으로 독보적인 화보를 완성해 내 눈길을 끌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유진은 최상의 컷을 만들어 내기 위해 촬영 내내 스태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화보 장인답게 눈빛과 포즈를 자유자재로 구사해내는 것은 물론 즐겁고 화기애애한 현장 분위기를 주도해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무리했다는 후문이다.

유진은 SBS 최고의 화제작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오윤희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즌 1, 2에 이어 시즌 3까지 긴 호흡의 시즌제 드라마를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소화해낸 유진은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브랜드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유진이 '펜트하우스3'에서 또 어떤 활약을 보일지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유진이 출연하는 SBS 금요드라마 '펜트하우스3'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이미테이션' 스파클링, '유희열의 스케치북' 출격

'DIAMOND' 풀버전.. 무대 최초 공개!

KBS2 '이미테이션'에서 보이그룹 '스파클링'으로 활약하고 있는 윤호, 이수웅, 성화, 산이 내일(11일)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격한다.

KBS 2TV 금요드라마 '이미테이션' 아이돌 100만 연예고시 시대에 맞춰 진짜를 꿈꾸는 모든 별들을 응원하는 아이돌 헌정서로 탄탄하게 구축한 새로운 아이돌 세계관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미테이션' 속 보이그룹 '스파클링'의 유진(윤호 분), 현오(이수웅 분), 세영(성화 분), 민수(산 분)가 내일(11일) 방송되는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이하 '유스케')의 '흔들리는 동공 속에서 네 본캐향이 느껴진 거야 특집' 출격을 앞둬 이목을 집중시킨다. 스파클링은 대세 아이돌답게 이번에는 '유스케' 섭렵에 나서는 파죽지세 행보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앞서 드라마를 통해 공개됐던 스파클링의 'DIAMOND' 무대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그 열기를 이어받아 이번에는 스파클링이 '유스케'를 통해 'DIAMOND'의 풀버전을 최초 공개, 청량감 넘치고 파워풀한 무대를 예고해 기대를 높인다.

특히 요즘 뜨거운 화제몰이 중인 그룹 '매드몬스터'와 스파클링의 만남도 성사됐다고 알려져 최강 대세돌 조합에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 이에 완벽한 퍼포먼스와 케미, 그리고 재치 있는 토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스파클링의 '유스케' 출연에 기대가 쏠린다.

카카오페이지 원작 웹툰 '이미테이션'은 2014년 첫 연재 이후 웹툰 누적 조회수 4.8억뷰 돌파, 카카오페이지 구독자 404만 명 돌파, 카카오페이지 최대 팬덤 IP 누적 댓글 60만개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K-웹툰으로 북미는 물론 일본, 중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톱스타' 라리마, '완성형 아이돌' 샥스, '성장형 아이돌' 티파티, '열정형 아이돌' 스파클링 등 '이미테이션'의 새로운 세계관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신입사관 구해령', '솔로몬의 위증'을 연출한 한현희 감독과 김민정, 최선영 작가가 의기투합해 아이돌 세계를 더욱 흥미롭고 탄탄하게 그려내며 '원픽 뮤직 드라마'의 탄생을 알렸다.

한편 KBS2 금요드라마 '이미테이션' 6화는 내일(11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전순희/기자